

2015年度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 食べ物
- ➡ 飲み物
- ➡ お風呂
- ➡ 住居
- ➡ 結婚式
- ➡ お見舞い

2015년도 한일 문화비교 그룹・레포트

- ➡ 먹을거리
- ➡ 마실거리
- ➡ 목욕
- ➡ 주거
- ➡ 결혼식
- ➡ 병문안

『日本と韓国の食文化』

韓国と日本の食文化について話をするとき常に一番最初に言及され、見逃せないのがお箸に関する部分です。韓国と日本は、両方とも基本的に箸を使います。ただし、韓国ではスプーンが主であり、箸はスプーンを補助して使用する概念であるのに対し、日本ではほとんどの食品を箸を使って食べています。そのため、握り箸(攻撃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や突き箸(見た目が悪いただけでなく、火の通り具合を疑っているようにも見られるため)というような、箸のマナーに関しては、「箸に始まり箸に終わる」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特に厳しいと言えます。韓国でも、幼い頃から箸の握り方を各家庭ごとに教え、上でも述べたように誤った箸の握り方に対して正しく握るよう指導します。また、スプーンをより多く使うので、箸に劣らずスプーンの使用にも厳しいです。例えば、スプーンがあるのに箸で汁をかき混ぜたり、汁の具を取って食べたりするといけません。したがって箸はおかずを取る場合にのみ使用します。このように、韓国料理を食べる時はスープだけでなく、ご飯もスプーンで食べるのが正式ですが、最近の若者たちは箸だけで食事を済ます場合もどんどん増えています。

韓国は昔から「東方礼儀の国」と呼ばれるほど「礼儀」を重視しており、食の言い伝えにも礼儀に関するものが多いです。基本的に、目上の方が先にスプーンを持ち上げる前に食べてはいけません。もともと、目上の人よりも先に食事を終えてスプーンや箸を置いてはいけないため、速度を合わせて食べます。日本も目上の人に対する尊敬の心を重視するため、一番目上の方が箸を持ち上げたら下の人でも食べ始めます。幼い頃、祖父母と一緒に食事をするときにはいつも先に食べ始めずに「さあ、食べよう」と言われてからようやくスプーンを手を持った記憶があります。今の若者は、このような記憶さえない場合が多いといえます。一緒に食事をする人の気持ちを配慮して失礼な行動をしないように、幼い頃から知らず知らず学んできたことを改めて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変な箸の握り方をしたり、特に韓国人の場合、茶碗を手を持って食べて怒られた記憶は誰でもあると思います。先に述べたように、韓国と日本の最大の違いと言えるのが茶碗の位置ですが、韓国は茶碗を手を持って食べてはいけません。昔の乞食が茶碗を持ち歩いてご飯を食べたことから否定的な認識があり、茶碗を持って食べると乞食のように人の世話になると思ったようです。それに対して、日本は家でよく飼っていた犬が地に置かれた器に盛られたご飯を食べるのを見て、手を使うことができる人は、食べやすいように手で持って食べるのが当然だと思っていたという話があります。

かつては男の位置が女性よりも優位にありましたが、これは男は跡目を継いで家を繁栄させる存在であり、先祖の祭祀を行う対象と考えたからです。そのため男児選好思想が強かった昔は家族であっても、男性、女性が同じ床ではなく別々の床で食事をしていたといえます。昔の話が書いている本を読んでも嫁は家族がご飯を食べ終わった後にかまどがある台所で立ったまま冷めたご飯を食べるシーンもたまにあります。このような背景に照らして見ると、日本の「秋茄子は嫁に食わずな」ということわざは日本も、特に嫁の位置がとても低かったこと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秋茄子は味が特に良いため、憎い嫁には食べさせないという話もありますが、秋茄子は種子が少ないのでもしかして嫁が食べると子孫が減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心配から始まったという説もあなげます。

さっきの茄子の種のように食べ物種が子孫と関連があるという考えは、韓国でも共通して示されます。例えば、韓国では結婚式で「幣帛;お色直しをして両親にあいさつすること」をするときに両親がナツメと栗を投げますが、種があるナツメは息子を意味し、種のない栗は娘を意味してナ

ツメと栗を韓服のチマに受け取る風習があります。ちなみに、韓国にも嫁にまつわることわざがいくつかありますが、最も知られているのが「秋コノシロは家出した嫁も帰って来るようにする」というのです。特に秋コノシロは産卵を終えた後、栄養が豊富になるため、秋コノシロを焼く匂いに家出した嫁も帰ってくるほど美味しいという意味ですが、昔には暮らしがあまりにも大変で嫁が家出することもあったことを知るす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と日本の両方、いまだに亡くなった先祖を供養する「祭祀」を重視し、大きな祝日といえば、旧正月とお盆があります。それぞれの名称と祭祀の内容は少しずつ違いがありますが、心使いは結構似ていると言えます。日本ではお盆になると、ご先祖様の霊が早く来らという気持ちでキュウリで作った馬を用意して、戻って行くときはなるべくゆっくりと帰ってほしい望みを込めてナスで作った牛を準備します。また、神棚の御神酒は少量を入れますが、これは祖先(神様)がこの家は家計が厳しいのかと思って助けてくれる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韓国も祭祀を用意しておく、先祖が家に帰り食べれるように、果物のヘタ、上の部分を切り取った後に供えます。また、祭祀を過ごした後、先祖の霊と一緒に来る邪魂のために、祭祀の食べ物から少しずつ取り集めた「ムルバプ」を用意して玄関の前に置く風習がまだまだあります。ちなみに、靈魂を追いかけ出すという桃と小豆、ニンニクは祭祀にあげないことも、先祖が訪れると考えから始ま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他にも、「お米の一粒一粒は農夫の汗であり、血である」という韓国の言い伝えと「お米の一粒一粒には神様がいる」という日本の言い伝えはかなり似ています。これは、お米の一粒さえ無駄にしない、という先祖の教えが込められています。韓国の「食べ物を残せば、死んだあとすべて食べ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話や、日本の「茶碗にお米を残すと目がつぶれる」という話と同じ脈絡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韓国では寝る前、枕元に「ジャリキ」という水を用意して、いつでも水を飲めるように気を使いましたが、日本では「朝茶はその日の難逃れ」という言い伝えがあり、朝のお茶はその日の災難を除いてくれるから必ず飲んだほうが良いという考えがあっ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ういう習慣は、今でも韓国は食事のときに水を、日本はお茶を飲むことから昔の一節の言い伝えも見くびっ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このような言い伝えは、昔から培ってきた知恵をそのまま伝承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私たちは大切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ります。

最近では、ほとんどが核家族で祖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人が少ないため、明らかに昔からの言い伝えだということにも関わらず、私たち1グループの中で話し合ってみるとこのような言い伝えは初めて聞いたという意見もけっこうあり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話が単純な言い伝えだけではなく、一つ一つが私たちの健康や目上の人に対する当然のマナーなど、深い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に改めて驚きました。

これからは今まで授業で学んだことをもとに、兄弟や、将来の自分の子供にも、先祖の呼びかけと知恵が込められているこういう言い伝えを理由も加え、教え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人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

1 グループ

蘭 理沙、 石井 吹雪、 有光 桃、 有瀬 里花
(アララギ リサ) 、 (イシイ フブキ) 、 (アリミツ モモ) 、 (アリセ リカ)

洪 性允、 文 晶垠、 金 賢株、 金 秀珍、 禹 松希、 金 鉉淑
(ホン ソンユン) 、 (ムン ジョンウン) 、 (キム ヒョンジュ) 、 (キム スジン) 、 (ウ ソンヒ) 、 (キン ケンシユク)

『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될 뿐더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본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손가락이 주(主)**이고, 젓가락은 **손가락을 도와 함께 사용**하는 개념인 반면,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젓가락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젓가락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젓가락 쥐는 법 중에서도 특히 니기리바시(주먹 젓가락질;어린애 등의 서투른 젓가락질을 뜻함. 두 개의 젓가락을 어긋나게 쥐어 사용,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나, 츠키바시(음식에 젓가락을 찔러서 먹는 젓가락질. 보기에 나뿔 뿐만 아니라 음식이 익었는지 확인 차 찔러보는 것처럼 보인다)를 금지하는 등 젓가락 매너에 특히나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어릴 적부터 젓가락을 쥐는 법을 각 가정마다 가르치며 앞서 언급한 잘못된 젓가락질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손가락을 더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 **젓가락질 못지 않게 손가락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합니다. 가령, 손가락이 있는데도 젓가락으로 국을 휘젓거나 국의 건더기를 건져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젓가락은 반찬을 집을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이렇듯, 한식을 먹을 때는 국물 뿐 아니라 밥도 손가락으로 먹는 것이 정식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차츰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만큼 '예'를 중시해왔으며, 음식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예의**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본디, 어른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아도 안되므로 속도를 맞추어 먹어야 합니다. 일본 역시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중시했던 터라 가장 윗사람이 젓가락을 들면 아랫사람도 먹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조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늘 기다렸다가 "(이제) 먹자" 하신 뒤에야 손가락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이런 기억마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고 실례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어릴 적부터 알게 모르게 배워왔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 하거나, 특히 한국인의 경우, 밥그릇을 들고 먹다가 혼난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밥그릇의 위치**를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은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거지들이 밥그릇을 들고 다니며 밥을 얻어먹은 데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여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거지처럼 빌어먹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집에서 흔히 키웠던 개들이 땅에 놓여진 그릇에 담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밥그릇을 먹기 편하게 들고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의 위치가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었는데, 이는 남자는 대를 이어 가문을 번창시키는 존재이며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옛날에는 한 가족이라 할 지라도 남자, 여자가 경상을 하지 않고 따로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다 보면 며느리는 가족들이 밥을 다 먹은 후에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서 서서 차갑게 식은 밥을 먹는 장면도 간간히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의 **"늦가을 가지는 며느리에게 먹게 하지 않는다"**는 속담은 일본 역시 특히 며느리의 위치가 현저히 낮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가을에 익는 가지는 특히 맛이 좋기 때문에 미운 며느리는 먹이지 않는다는 설도 있지만, 늦가을의 가지는 씨가 적기 때문에 혹여 며느리가 먹으면 자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지의 씨처럼 먹거리의 씨가 **자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결혼식 중에 '폐백'을 할 때 부모님께서 대추랑 밤을 던져주는데 씨가 있는 대추는 아들을 뜻하고, 씨가 없는 밤은 딸을 뜻하여 대추와 밤을 치마폭에 한 가득 받아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한국 역시 며느리에 관한 속담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입니다. 특별히 가을 전어는 산란을 마친 후 영양이 풍부해져 고소하고 영양분이 많은데 이 가을 전어를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만큼 맛이 있다는 속담인데 옛날에 며느리가 살림이 너무 고되어 집을 나가는 일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선조를 공양하는 '제사'를 중시하는데, 큰 명절로는 설날과 추석에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과 제사상의 차림새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거나 마음가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추석이 되면 조상님의 혼령이 어서 빨리 오시라는 마음으로 오이로 만든 말의 형상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가실 때에는 되도록 천천히 가시라는 마음에서 가지로 만든 소의 형상을 준비합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소량만 담는데, 이걸 조상님이 보시고는 살림이 어려운 줄 알고 도와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제사상을 준비하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해 과일과 꼭지를 전부 제거하고 윗부분을 잘라낸 후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조상님의 혼령과 함께 오는 잡귀를 위해 제사음식을 조금씩 떼어낸 '물밥'을 준비해 문 앞에 두는 풍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혼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복숭아와 팥, 마늘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 역시 조상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쌀 한 톨, 한 톨이 농부의 땀이고 피"라는 한국의 구전이나 "쌀 한 톨, 한 톨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일본의 구전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이는 쌀 한 톨도 쉬이 낭비하지 말라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남기면 죽어서 다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나 일본의 "그릇에 밥풀을 남기면 눈이 먼다"는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전 머리에 '자리끼'라는 물을 준비해 두고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아침 차 한 잔은 그 날의 불운을 피하게 해준다"는 말로 아침에 차를 마시게끔 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국은 식사할 때 물을 마시지만 일본은 차를 마시는 것에서 옛 속담 한 줄도 허투루 들을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들은 오래 전부터 길러 온 지혜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소중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핵가족으로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적은 만큼, 분명 옛날부터 꾸준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데도 조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때 다들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구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우리 몸의 건강이나 어른에 대한 예절 등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린 동생이나, 나중에 내 아이에게도 옛 선조들의 당부와 지혜가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유와 더불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1조 :

아라라기 리사, 이시이 후부키, 아리미츠 모모, 아리세 리카
홍성윤, 문정은, 김현주, 김수진, 우송희, 김현숙

2015年【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朴 宰賢 / 朴 智恵 / 宋 鉉姿 / 張 允鐔 / 鄭 玟智

(パクジェヒョン) / (パクジヘ) / (ソンヒョンジャ) / (ジャンユンヘ) / (ジョンミンジ)

笹目夏乃/久保田萌子/後藤春香/佐藤冴香/酒井綾乃/南光華

(ササメナツノ) / (クボタモエコ) / (ゴトウハルカ) / (サトウサヤカ) / (サカイアヤノ) / (ナンコウカ)

2015年【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私達、2グループは互いの文化について興味を持ち話し合いました。韓国・中国・日本。この三ヶ国は、近いけど遠い国です。けれども、地理的に近い分似ている文化を持ったりします。今回のレポートでは、各国の**食事マナー**について調べ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

※ 食事マナー・文化



韓国・日本・中国 の食事文化の違い

1. 韓国はご飯を食べる時、スプーンを使うが、中国と日本は、箸を使います。
2. 韓国はご飯を食べる時、茶碗をテーブルの上に置いて食べるが、日本と中国は左手で持って食べます。
3. 韓国は、箸を縦に置くが、日本は横に置きます。
4. 韓国の箸は、中国と日本の木で作られた箸と違って鉄で作られた箸を使います。

韓国の食事マナー

1. 目上の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時に、目上の人が食事に手をつけるまで、スプーンや箸を持たない、そして、食事を済ませるまで席を外さないのがマナーです。
2. 食べ物を食べる間は、食べ物の噛む音やスプーンと箸を茶碗にぶつかる音をたて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ません。
3. スプーンと箸を同時に片手で持って食べてはいけません。
4. 茶碗(ご飯やスープが入ったもの)を持って食べてはいけません。
5. 食べ物を全部食べた後は、スプーンと箸を揃えて置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日本の食事マナー

1. 韓国とは違って、ご飯を食べたり汁を飲む時、茶碗を手に持って食べます。
2. 食べ物を食べる時には、片手で茶碗(ご飯)を持って、もう片方の手でお箸を持ち、茶碗を口の近くに持ってきてこぼさないように食べ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汁を飲む時には、汁にある具をお箸で食べ、汁を飲む時は韓国とは違って、具と一緒に食べないように箸で押さえて飲む。
4. 食事のときには、一人一皿おかずが用意されています。

中国の食事マナー

1. 中国は、スプーンを使う時には、汁がある時だけ使って、箸はご飯や麺料理など他の料理を食べる時に使います。
2. スプーンを使った後、使った事がわからないようにスプーンを、裏返して置くのがマナーです。
3. 食事の時は、箸を皿の縁に置かなければいけない。そして、食事を済ませた後は、箸を箸置きの上に置いておき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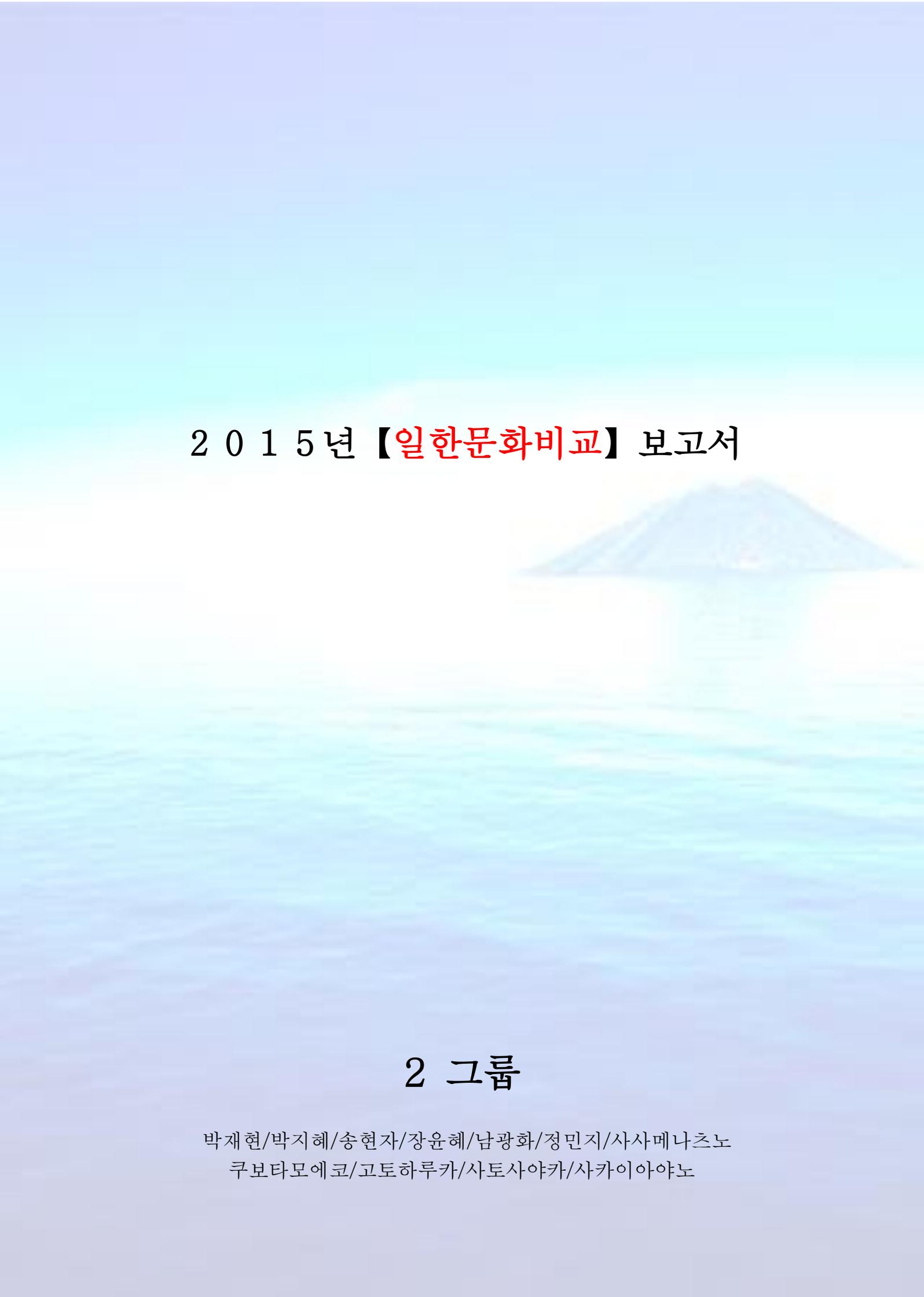
※ 感想



私たち2グループは 韓国、日本、中国の独特の食事文化・礼儀について話し合ってみました。

食事文化・礼儀は、その国の自然な環境と色々な社会的、経済的要因によって長い間変化し続けて来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こういう食事文化・礼儀に通じてその国の歴史を分かることができるぐらい大事なとこだと思いました。お互いの文化を理解し、尊重するという意味でその国に合った食事文化・礼儀を身に付け、その場にたったら実践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2015년 【일한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박지혜/송현자/장윤희/남광화/정민지/사사메나츠노
쿠보타모에코/고토하루카/사토사야카/사카이아야노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저희 2그룹은 모두 함께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나라는 가까우면서도 멀기도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나라의 **식사에절**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 합니다.

※ 식사에절 · 문화



한국 · 일본 · 중국의 식사문화 차이점

1. 한국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용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젓가락을 이용합니다.
2. 한국은 밥그릇을 식탁에 두고 먹지만, 일본과 중국은 왼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3. 한국은 젓가락을 세로로 놓지만, 일본은 가로로 놓습니다.
4. 한국의 젓가락은 중국과 일본의 나무젓가락과는 달리 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식사에절

1. 윗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엔 수저를 먼저 들지 않고, 윗사람이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2.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음식물의 씹는 소리 나 수저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등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한 손에 쥐고 먹지 않습니다.
4.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됩니다.
5. 음식을 다 먹은 후 에는 수저를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일본의 식사에절

1. 한국과는 다르게 밥을 먹거나 국을 먹을 때 그릇을 손에 들고 먹습니다.
2.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한 손에 밥그릇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 입 가까이에 가져와 흐르지 않도록 먹어야 합니다.
3. 국을 먹을 때에는 국에 있는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며, 국을 마실 때에는 한국과는 다르게 건더기와 함께 먹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눌러서 먹어야 합니다.
4. 식사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의 반찬이 준비 되어있습니다.

중국의 식사에절

1. 중국은 스푼을 사용 할 때 에는 국물이 있는 탕을 먹을 때에만 사용하고, 젓가락은 밥이나 국수 등 다른 요리를 먹을 때 사용합니다.
2. 수저를 사용하고 난 후 에는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저를 뒤집어 놓는 것이 예절 입니다.
3. 식사 중에는 젓가락을 접시 끝에 받쳐 놓아야 하며, 식사를 마쳤을 때는 젓가락 받침대 위에 올려둡니다.

※ 감상



우리 2그룹은 한국 일본 중국의 독특한 식사 문화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문화 예절은 그 나라의 자연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긴 시간 동안 계속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사 문화 예절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 나라에 맞는 식사 문화 예절을 몸에 익혀, 그 장소에서 실천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3 組 >

李 政宰、 李 康天、 李 乘賢、 李 玉京、 金 炫我
(イ・ジョンジェ)、 (イ・ガンチョン)、 (イ・スンヨン)、 (イ・オッキョン)、 (キム・ヒョンア)
林 恵真、 王 慧、 高橋美穂、 土方沙耶香、 中村実衣奈、 佐藤実希
(イム・ヘジン)、 (オウケイ)、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ナカムラミイナ)、 (サトウミキ)

<はじめに>

私たちのグループは日本、中国、韓国の食文化の差を比較し、各一つのテーマについて話した内容を各国ずつ分け、レポートを作成しました。

延いては各国に共通に存在する特定なお料理について、話したのを書きました。

第一、食器について

	韓国	中国	日本
お箸の置き方	縦に置く	縦に置く	横に置く
スプーン	ご飯やスープを食べるとき使う	主にスープを食べるとき使う	あまり使われていない
食器	持たずに食べる	食器を持って食べる	食器を持って食べる

第二、食事のマナー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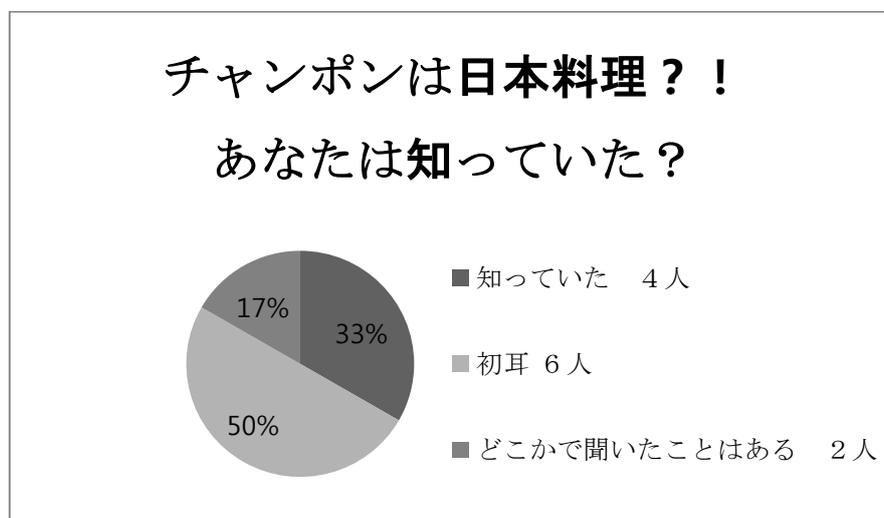
	韓国	中国	日本
食事をする順番	年配の人から食事をはじめる	年配の人から食事をはじめる	子供の順から食事をはじめる
麺類を食べるときの食事マナー	音をたてずに食べる	音をたてて食べる	音をたてて食べても大丈夫
おもてなしと食事招待された時のマナー	できるだけお料理をたくさん出し、出てきたお料理は残さず全部食べる。	主役の人を中心に食べ物を並べ、出てきたお料理はたくさん残す	主に、寿司類を出し、出てきたお料理は残さず全部食べる

* 地域によりますが、最近の韓国は出てきたお料理を少しづつ残す食文化から残さずに全部食べる文化に変わ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第三、共通にある食べ物について

	韓国	中国	日本
うどんに使われる材料のイメージ	油揚げ、さつまあげ、シュンギク、ひしこいわし		天かす、油揚げ、ワカメ、ナルト かつおぶし
チャンポンのイメージ	赤くて辛いスープに海鮮が主役の麺料理	チャンポンという料理はないが、似ている料理として辛い味のマラタンがある	白いスープに野菜と海鮮の麺料理
スンデを食べる時につけるソース	(ソウル) 調味塩 (釜山) サムジャン (ジョンラ道) チョジャン	醤油	
マクドナルドをどのように言いますか？	メクドナルド メク	マイタンラウ	(関東) マック (関西) マクド

* 韓国で中華料理の代表的な料理、チャンポンが実は日本の料理だっ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第四、まとめ

東アジア三国（日本、韓国、中国）の食文化は似たように見えるが、一つ一つ、細かく見てみると、やっぱり差が存在す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今回は特に軽く思ってしまいがちな食事マナーについてたくさん話し合いました。例えば、お箸の使い方や、スプーンの使い方、お皿の置き方、テーブルの拭き方、手の置き方、包丁の使い方など、同じ食器や道具を使っていながらも使用方法やマナーに少しずつ差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また、昔と今との食文化の変化について新たに知るようになったこともあります。現代の人の食べ物は昔と比べるとだんだんしょっぱくなっていること。

特に韓国人の食べ物は前と比べるとより辛く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現代家族の構成の変化に伴って変化した食文化もありました。

家族全員揃って、一緒に食事をしていた前とは違って、最近の家族は全員揃って食事をすることが少なくなり、最近は食事をする順番の決まりが微妙になったことも分かりました。

このように、今回の授業を通じて新しく学んだ事実と、国々に対する文化の知識、これを基にして、お互いの文化をより尊重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以上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이정재,이강천,이승현,이옥경,김현아,임혜진,오우케이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나카무라 미이나, 사토우 미키

<시작하며>

저희 조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식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각 하나의 테마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각 나라별로 나누어 나누어 레포트를 작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각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요리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적었습니다.

제 1 식기에 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
수저	세로로 놓는다	세로로 놓는다	가로로 놓는다
숟가락	밥과 국을 먹을 때 주로 사용	스프게에 주로 사용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식기	테이블에 놓고 먹는다	들고 먹는다	들고 먹는다.

제 2 식사 매너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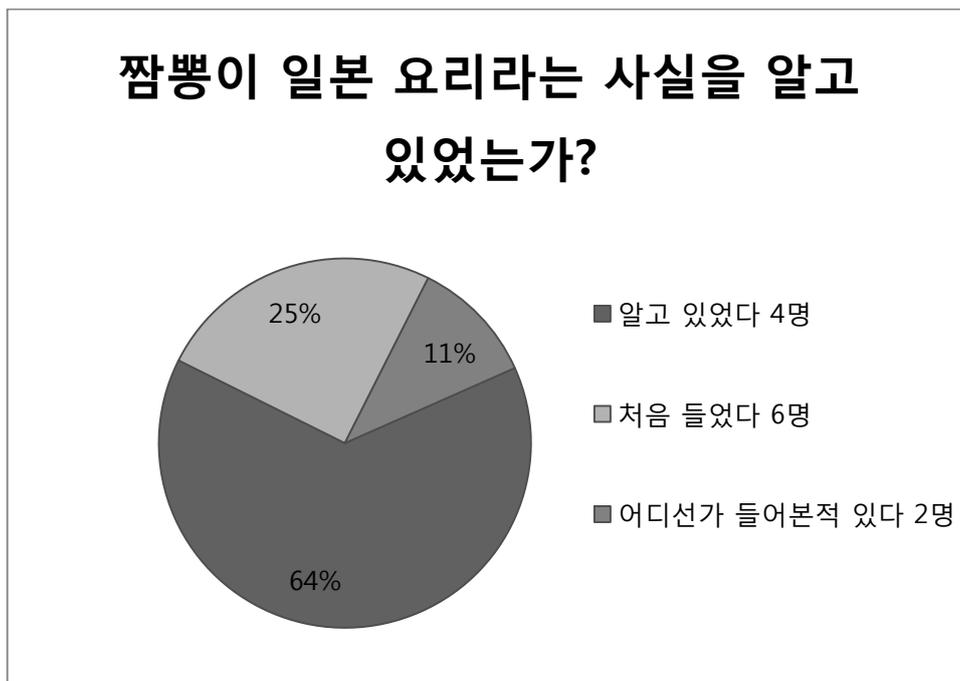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음식을 먹는 순서	연장자 순	연장자 순	나이가 어린순
면류를 먹을때의 매너	소리를 내지않고 먹는다	소리를 내어 먹는다	소리를 내어 먹는다
손님을 대접할때	음식을 많이 내어 대접한다. 또한 차려진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다.	주역인 사람을 중심으로 상을 차리며,먹은 음식은 많이 남긴다.	주로 스시 종류를 대접하며, 나온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최근 한국은 나온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식 문화에서 남김 없이 다 먹는 식 문화로 변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3 음식에 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
우동 재료에 대한 이미지	유부,오뎅,썩갓, 멸치,김치		튀김옷,유부, 미역,우즈마키
짬뽕의 이미지	빨강고 매운 스프에,해산물이 들어간 면 요리	비슷한 요리로 빨간 스프에 매운맛의 마라탕이 있다.	하얀 스프에, 야채와 해산물이 들어간 면 요리.
순대를 먹을 때 함께먹는 소스의 차이	(서울) 조미 소금 (부산)쌈장 (전라도)초장	파가 첨가된 간장	
맥도날드를 부를때?	맥도날드 맥	마이땅라우	(관동) 마쿠 (관서) 마쿠도

*한국에서 중화요리의 대표적 요리중 하나인 짬뽕이 실제로는 일본 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4 종합 의견.

동아시아 3국(한국,일본,중국)의 식 문화는 크게 보면 닮은 것 같지만, 하나 하나 디테일 하게 짚어보면 역시 차이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 갈수 있는 식사시의 매너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스푼의 사용법, 그릇을 놓는 방법 등, 같은 식기를 사용하는데도 사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음식을 먹는 순서나 음식을 준비할 때의 매너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대와의 식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음식이 과거에 비해 좀더 짜 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인의 음식은 예전 보다 더욱 매워 지고 있다 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가족 구성의 변화의 따라 변화한 식 문화도 존재 하였는데,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 와서는 가족이 한번에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어, 사실상 음식을 먹는 순서의 경계가 모호해 졌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여 그걸 통해 앞으로 서로간의 문화를 보다 존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REPORT



韓国と日本の
酒と茶

한국과 일본의

술과 차



1 グループ

《한국과 일본의 술과 차》

한국과 일본은 식문화 뿐만 아니라 술이나 차 등 마실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은 듯 다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 1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양국의 술자리 예절과 종류, 특징 등을 비교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술자리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은 상대방이 따라준다. (자작을 하면 3년간 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등의 설이 있다.) ● 술잔을 들고 술을 받는다. ● 술은 다같이 마시며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건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윗사람과 같이 술을 마실 때에는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마신다. ● 윗사람에게 술을 따르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마실 양만큼 스스로 따라 마신다. ● 술을 받을 때 테이블에 잔을 놓은 채로 따라도 상관없다. ● 처음에만 건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중에 일행이 왔을 경우에도 건배를 한다. ● 윗사람과 같이 술을 마실 때, 또 술을 받거나 따를 때에도 정중한 자세를 취한다.
종류 및 마시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걸리 :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막걸리는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 소주 : 서민들의 술로 통한다. 그만큼 저렴하고, 최근에는 과일 향이 첨가된 소주 등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 맥주 : 생맥주보다는 병맥주를 주로 마시는 편이다. 치킨과 함께 먹는 '치맥'이 고유명사가 될 만큼 젊은 층이 많이 마시는 술이다. ● 담금주 : 매실, 인삼, 복분자 등 다양한 과실, 한방약재를 장시간 담갔다가 마시는 술이다. ● 마시는 방법 : 소맥(소주+맥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다른 음료 또는 다른 술과 섞어서 마시지 않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혼슈 : 각 현(県)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니혼슈가 있다. 니혼슈의 술잔을 '오쵸코(おちょこ)'라고 하고, 뜨겁게 데운 니혼슈를 '아즈캇'이라 한다 ● 소주 : 쌀, 보리, 마 등 주재료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 사와, 츄하이 : 과일 향의 원액이나 과육, 과즙이 들어있고 알코올 도수가 3~8%로 낮은 편이라 가볍게 마실 수 있다. ● 맥주 : 생맥주를 많이 마시며 '우선 생맥주!'라는 말이 유명하다. ● 위스키 / 와인도 쉽게 접할 수 있다. ● 마시는 방법 : 스트레이트/록 소다/물/온수/우롱차/오렌지 주스 등과 섞어 마시는 등 칵테일 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마실거리' 하면 술보다 더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차'입니다. 사실, 술은 성년이 되어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차입니다. 흔히 '차'하면 '녹차'를 떠올리기 십상인데, 생각보다 다양한 양국의 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효능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 수염차 : 구수한 맛이 특징이고 물처럼 자주 마신다 ● 결명자차 :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가정집에서 많이 끓여 마신다 ● 굴피차 : 말린 굴 껍질로 끓인 차. 감기예방에 좋다 ● 유자차 : 겨울철 단골 메뉴. 감기 예방과 더불어 목 보호에도 좋다 ● 오미자차 :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진 붉은 열매로 끓인 차 ● 녹차 : 전라남도 보성 녹차밭이 유명하다. 가장 널리 보급된 차 ● 울무차 : 유자차와 더불어 겨울철에 많이 마시는 차로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자판기에서도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차 : 우지 지방 녹차가 굉장히 유명하다. ●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목을 보호해주어 감기에 걸렸을 때 녹차로 입을 자주 헹구어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카테킨은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 우롱차 : 지방과 당분이 다량 함유된 요즘 식문화에 걸맞는 깔끔한 맛의 차 ● 일본에서는 식사 전, 식사 도중에도 물보다 차를 주로 마시는 습관상 달달하거나 과일, 곡식의 향이 남아있는 차보다 조금 더 쓴맛의 차(茶)가 더 많다.

요즘에는 티백 형식의 차가 많이 보급되어 예전보다 더 손쉽게 차를 접할 수 있습니다.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고,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풍토에 맞게 조금 더 몸에 좋은 차, 조금 더 마시기 쉬운 차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덧붙여, 한국은 과일이나 곡물, 그 껍질을 이용한 차가 많은데 일본은 주로 식물의 잎을 이용한 차가 많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생활 습관에 따라 술이나 차 문화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술이나 차, 문화를 지켜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 시대별 유행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친구들이 모여 술자리에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술자리 게임을 즐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韓国と日本の酒と茶》

韓国と日本は食文化だけではなく、お酒やお茶など飲み物に関しても似ているようで違う部分が多くあります。私たち1グループは基本的に知っておくと良い韓国と日本、両国のお酒のマナーと種類、特徴などを比較しました。

	韓国	日本
お酒のマナ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お酒は相手がついでくれる（手酌をすると三年間恋人ができないという説がある） ● 杯を持って受け取る ● 一杯ずつ飲むたびに乾杯をすることが多い ● 目上の人と一緒に飲むときは体を右側に向けて飲む・目上の人にお酒を注いだり注いでもらうときは必ず両手を使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分が飲む量を自分で注いで飲む ● テーブルにコップを置いたまま注いでもらっても良い ● 最初だけ乾杯を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途中参加の人が来た場合にも乾杯をする ● 目上の人にお酒を注いだり注いでもらう時にも正しい姿勢を保つ
種類と飲み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マッコリ：米を利用して作るマッコリは全世界に輸出されている ● 焼酎：庶民のお酒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そのくらい低価格で、最近では果物の香りを混ぜ込むなどの様々な種類のものが売られている ● ビール：生ビールよりは瓶ビールを主に飲む。チキンと一緒に楽しむ「チメック」が固有名詞になるほど若者の間でよく飲まれる ● ホワイトリカー：梅の実、朝鮮人参、トックリイチゴなどの多様な果実や漢方薬材を長時間漬けて飲む酒 ● 飲み方：ソメック(ソジュ:焼酎+メクチュ:ビール)があるが基本にお酒を違う飲み物・お酒に混ぜて飲まな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酒：各県ごとにその地域を代表する有名な日本酒がある。日本酒の杯のことを「おちょこ」といい、熱く温めた日本酒を「熱燗」という ● 焼酎：米、麦、芋などの主材により区分される ● サワー、チューハイ：果物の香りがする原液や果肉、果汁を入れアルコール度数が3～8%と低いので気軽に飲める ● ビール：生ビールをたくさん飲み、「とりあえず生！」という決まり文句がある。 ● ウイスキーやワインもよく飲まれる ● 飲み方：ストレート・ロック、他にもソーダ・水・ウーロン茶・オレンジジュースなどと混ぜて飲むなど、カクテルの種類がとても多い

「飲み物」といえば、お酒より先に頭に浮かぶのは「茶」です。実際に、お酒はハタチになってからしか飲めないため、むしろ幼いときから生活の中で身近なものといえばお茶といえます。よく「お茶」といえば「緑茶」が浮かんでいますが、意外と多様な両国のお茶についてみていきます。

	韓国	日本
効能 特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麦茶、玄米茶、トウモロコシ茶：香ばしい味が特徴で水と同じようによく飲む ● エビスグサ茶：目に良いと言われていて家庭でよく沸かして飲む ● 橘皮茶：干したみかんの皮を沸かしたお茶、風邪予防に良いと言われる ● ゆず茶：冬の定番メニューで風邪予防や喉を守る効果もある ● 五味茶：五つの味を味わえるといわれている赤い実を沸かしたお茶 ● 緑茶：全羅南道にあるボソン緑茶畑が有名、一番広く普及されているお茶 ● ハトムギ茶：ゆず茶とともに冬によく飲まれるお茶で香ばしい味が特徴で、自販機でも売られてい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緑茶：宇治地方の緑茶がとて有名 緑茶に含まれている「カテキン」という成分が喉を守り風邪にかかったときに緑茶で口をゆすいだりうがいをしたりする。また、カテキンは癌予防にも良いといわれている ● ウーロン茶：脂肪と糖分が多く含まれた最近の食文化によく合うさっぱりとした味の茶 <p>日本では食事の前に、また食事の途中でも主に水よりお茶を飲む習慣があるため、甘いものや果物、穀物の香りが残るお茶よりすこしほろ苦い味のお茶が多い。</p>

最近ではティーパックの形のお茶が普及され、以前より手軽にお茶に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種類もかなり増え、健康を重視する最近の考えに合わせた体に良いお茶、飲みやすいお茶を求める人たちも多くなりました。

今回の調査を通して、生活習慣によってお酒やお茶の文化でも様々な違いがあ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感じることも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また、昔から受け継がれてきたお酒やお茶、文化を守っていく面がある一方で、最近になって新しく出てきたものもあり、時代別の流行も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

日本と韓国がお互いに集まり、お酒を一緒に飲むときに楽しいお酒のゲームを楽しみながらたくさんのお話をしていく時間をつくることも良いと思います。

1グループ

あららざり さ ありみつ もも ありせり か ホン ソンユン
 蘭 理沙、有光 桃、有瀬 里花、洪 性允、
 ムン ジョンウン キム ヒョンジュ キム スジン ウ ソンヒ キム ヒョンスク
 文 晶垠、金 賢株、金 秀珍、禹 松希、金 鉉淑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パクジヘ ソンヒョンジャ ジャンユンヘ ジョンミンジ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くぼたもえこ ごとうはるか さとうさやか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お酒マナー・文化

韓国のお酒マナー

1. 目上の人にお酒を注いでもらう場合、片手ではなく両手で丁寧に注いでもらいます。
2. 目上の人とお酒を飲む場合、目下の方は両手で丁寧にグラスを持ち、顔を少し右に背けてお酒を飲みます。
3. 韓国は、グラスが空になったら、相手が自然に注いでくれます。
4. 韓国では、お酒を飲む前に、相手とグラスを合わせる事が多いです。
5. 韓国の女性は、相手が恋人または家族ではない場合お酒を先に注いではいけない事があります。

日本のお酒マナー

1. 日本は、韓国と違って目上の人とお酒を飲む時に、顔を背けたりしません。
2. 日本も韓国と同じように、お酒を飲む前にグラスを合わせる事があります。
3. 日本は、大体同じお酒より各自飲みたいお酒を頼んで飲みます。
4. 日本は韓国と違って、女性が相手(恋人・家族でない人)にお酒を注ぐ事が多いです。

結論

韓国と日本のお酒のマナーのうち、目上の人と飲む場合には礼儀をわきまえ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除けば、異なる点がとても多いです。

そのため韓国と日本のお酒のマナーを熟知して状況に合わせて行動して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お茶の文化

韓国のお茶文化

1. お茶を主題や素材にした各種の新聞や民謡、童謡など数多く作られてきた伝統文化と生活での茶文化の発展に大きく影響を与え、特に茶道と密接な関係を持っている陶器の文化からも影響を受けたと言います。
2. 韓国の家庭では食事の時緑茶、麦茶も 飲むが、主にお水を飲む場合が多いです。
3. 最近、韓国でもペットボトルに入った緑茶や麦茶のようなものがたくさん見ら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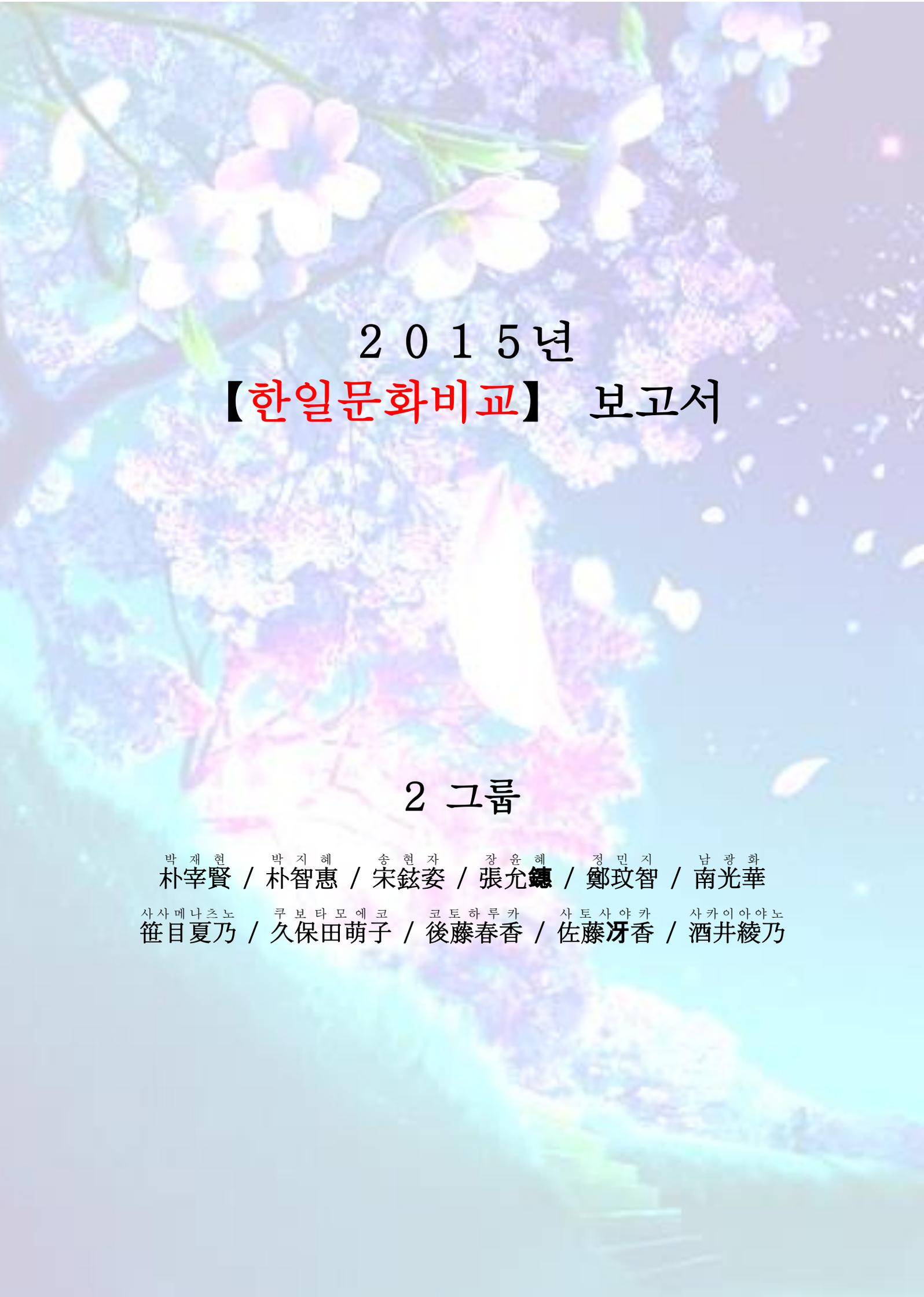
日本のお茶文化

1. 日本のお茶文化は栄西（1141～1215）禅師がお茶の種を持ってくるにつれて始まったと言います。
2. 日本は一般的にお茶を飲む人も多く、お茶の文化も深いです。
3. 日本の家庭では麦茶や緑茶など食事をしながら飲みます。
4. 日本はお茶をよく飲むのでコンビニや自動販売機などでペットボトルに入ったお茶を簡単に接することができます。
5. 中では油濃いものを食べるときは ウーロン茶を飲むのがよく合うと言います。また日本はお茶の種類が多いです。

結論

異文化交流が盛んでた韓国と日本はお茶の文化の発展に関し、互いに大きな影響を与え現代のお茶の文化の発展に役立ったのだと分かりました。

このようにこれからも昔のお茶の文化を守り、さらに発展させることが日韓文化交流にも役立つと思います。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혜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츠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술자리 예절 · 문화

한국의 술자리 예절

1. 윗사람에게 술을 따라 받을 경우 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야 합니다.
2. 윗사람과 같이 술을 마실 경우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들고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고 마십니다.
3. 한국은 잔이 비면 상대방이 자연스레 따라줍니다.
4.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상대방과 잔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한국은 여자 쪽에서 상대방 남자가 연인, 가족이 아니면 술을 먼저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술자리 예절

1. 일본은 한국과 달리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에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2. 일본은 한국과 같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잔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본은 대개 같은 술보다 각자 마시고 싶은 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4. 일본은 한국과 달리 여자 쪽에서 상대방이 남자인 경우 연인,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을 따라도 됩니다.

결론

한국과 일본의 술자리 예절 중 윗사람과 마실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술자리 예절을 숙지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차 문화

한국의 차문화

1. 차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각종 신문이나 민요, 동요 등 수없이 창작되어 온 전통 문화와 생활 문화로서의 차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다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도자기 문화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2. 한국의 가정에서는 식사를 할 때에 녹차, 보리차도 마시지만 보통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근 한국에서도 페트병에 든 녹차와 보리차와 같은 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차문화

1. 일본의 차문화는 에이사이(1141~1215)선사가 차의 씨를 일본에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일본은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도 많고 차문화도 깊습니다.
3. 일본의 가정에서는 보리차와 녹차 등을 식사를 하면서 마십니다.
4. 일본은 차를 자주 마시기 때문에 편의점과 자동 판매기 등에서 페트병에 든 차를 쉽게 접 할 수 있습니다.
5.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롱차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은 차의 종류가 많습니다.

결론

문화교류가 많았던 한국과 일본은 차문화 발전에 서로 깊은 영향을 끼치고 현대의 차문화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예전의 차문화를 잘 보존하여 더욱 더 발전 시키는 것이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3グループ>

イ ジョンジェ イ ガンチョン イ スンヒョン イ オッキョン キムヒョン ア イムヘジン
李 政 宰, 李 康 天, 李 乘 賢, 李 玉 京, 金 炫 我, 林 惠 眞
オウケイ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ナカムラミイナ サトウミキ
王 慧、高橋美穂、土方沙耶香、中村実衣奈、佐藤実希

<はじめに >

今回私たちの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の飲酒文化について話しました。

また、茶のイメージのアンケートを実施しました。

第一 お酒について

1) 飲み会の時よく使われる用語の比較

日本	韓国
乾杯	コンベ(乾杯) ウィハヨ(~ために) チャン(グラスをぶつける音)
飲む	(お酒を)飲む、食べる、プダ、 ブッタ(注ぐ)
一気飲み	ウォンシャット(ワンショット)
下戸	お酒を口に当てられない
ざる	マルスル、ジュダン(酒黨)、スルコレ(酒鯨)
割る	(お酒を)混ぜる、マルダ(入れる)
二次会	イチャ(二次)
酒癖	スルコジャン(酒癖)、 スルジュウジョン(酒酊)
二日酔い	スクチ(宿酔)、スルビョン(酒病)

2) 日韓飲酒文化

	日本	韓国
つぎだし	可能	不可能 * つぎだしは死んだ人にする事なので、マナー違反になる。
手酌	最初はお互いお酒を注いで飲み、 後は自分で注いで飲む	マナー違反
女性がお酒を注ぐことに対するイメージ	特にない	よくないイメージがある
目上の人と飲む際	普通に飲む	目上の人にお酒を両手で注ぎ、飲むときは他のところを向いてお酒を飲む

* グループで話した飲酒文化の内容の中で両国一致するところが一つもありませんでした。

3) 代表的なお酒のイメ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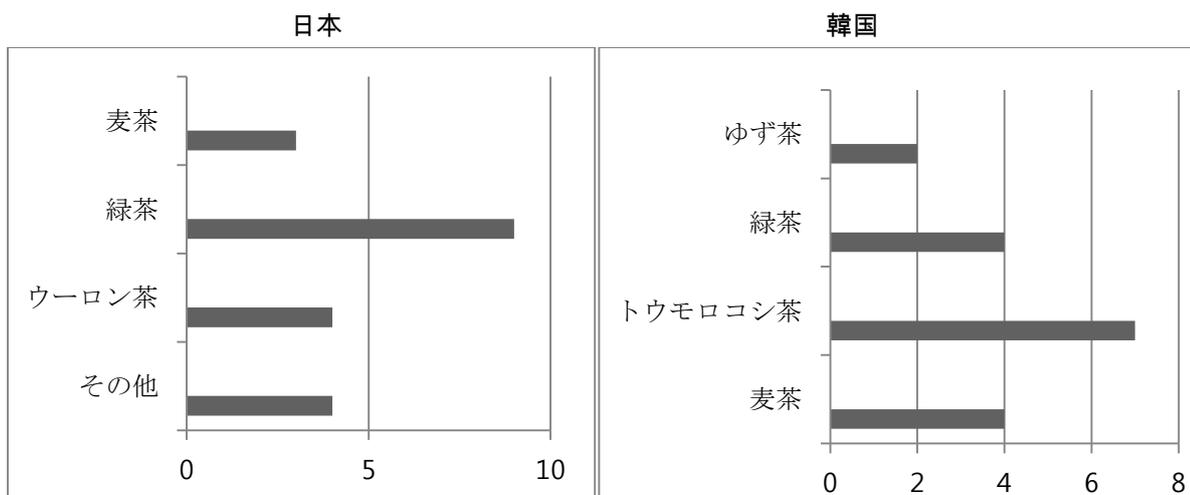
	日本	韓国
お酒	ビール	ソジュ (焼酎)
おつまみ	えだまめ、いか	チゲ、サムギョプサル
割る材料	みず、お湯、お茶 炭酸水、エナジードリンク	ビール、炭酸水、はちみつ、 ラムネ、コーラ

* 日本は醤油系や、あっさりしたイメージのおつまみが多い一方、韓国はあぶらっこく、辛いおつまみが多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

第二 お茶について

日韓各国の、「お茶」といったらどんなお茶が浮かぶの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ました。

調査表本は 20 - 30 代の日本人 20 人、韓国人 20 人です。



* 日本人のアンケート調査で1票ずつ得票したジャスミン、梅、ほうじ、昆布茶はその他に入れ、韓国人の調査で1票ずつ得票した、決明子、ドングレ、ハトムギ茶はチャートに含まれていません。

<시작하며>

저희 조는 한국과 일본의 음주 문화를 비교 했습니다.
 또한 용어 비교를 통해 술에 관련된 용어를 조사 하였으며,
 한일 각국의 차 에 대한 이미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 1 술에 대하여

1) 술에 관련한 용어 비교

한국	일본
건배 , 위하여, 째	칸파이(건배)
(술을) 마시다, 먹다, 푸다, 붓다	노무(마시다)
원샷	잇키노미(한번에 마시다)
술을 입에 못댄다	게코(술을 못마시는사람)
말술, 주당	자루(소쿠리)
(술을) 섞다, 말다	~와루(섞다)
2차	2지카이
술 버릇, 술 꼬장	사케 구세(술 버릇)
숙취, 술병	후츠키 요이(이튿날의 취기)

2) 한일 음주문화 비교

	한국	일본
첨잔	불가능 <i>*첨잔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매너위반</i>	가능
자작	매너 위반	처음에는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나, 이후에는 스스로 따라 마신다.
여성이 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	특별히 없다.
어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어른에게 술을 따르고, 마실때는 고개를 돌려 마심	평범 하게 마신다.

*조별 토의를 하며 나온 이야기 중에 서로 일치하는 음주 문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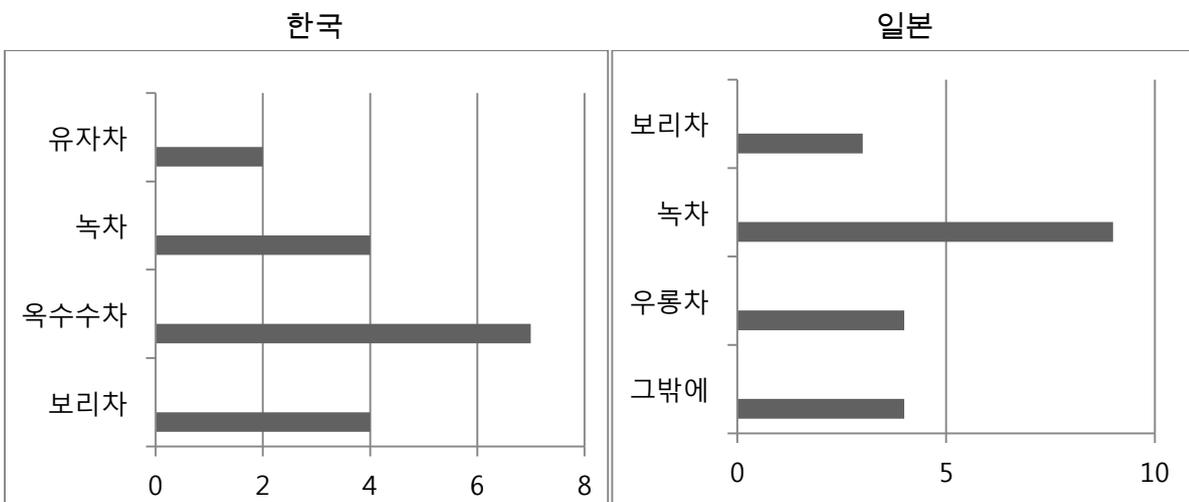
3) 술 에 대한 이미지

	한국	일본
술	소주	맥주
안주	찌개, 삼겹살	에다마메,오징어
섞어 마시는 재료	맥주, 탄산수, 꿀, 사이다 콜라,	물, 따뜻한 물, 우롱차, 탄산수, 에너지 드링크,

*한국의 경우엔 맵고 기름진 안주가 주로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 주로 간장맛의 안주나, 산뜻한 맛의 안주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2 차에 대하여

한일 각국의 ‘차’ 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 표본은 20-30대 한국인 20명,일본인 20명 입니다.



*한국인의 조사에서 각각 1표씩 득표한 등글레, 결명자, 울무차는 차트에서 삭제 하였으며, 일본인의 조사에서 각각 1표씩 득표한 자스민,메실,호우지,콘부 차는 그밖에의 차트에 포함 시켰습니다.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이정재 (李政宰) 이강천 (李康天) 이승현 (李乘賢)

이옥경 (李玉京) 김현아 (金炫我) 임혜진 (林惠眞)

오우케이 (王慧) 타카하시 미호 (高橋美穂) 히지카타 사야카 (土方沙耶香)

나카무라 미이나(中村実衣奈) 사토우 미키(佐藤実希)

日本と韓国 お風呂文化



1グループ

蘭 理沙・有光 桃・有瀬 里花

洪 性允・文 晶垠・金 秀珍・金 賢珠・禹 松希・金 鉉淑

『日本と韓国のお風呂文化について』

今回は日韓のお風呂と温泉文化についてチームで話してみました。

まずは、「**日本と韓国のお風呂**」の違いに対する意見です。

韓国ではトイレとお風呂が一緒になっている家が多いそうです。韓国にも日本と同じように家庭に湯船がありますが、家では湯船に浸かることはほとんどなく、布団などを洗うときの洗濯用に使われたりその湯船の中に入ってシャワーを浴びたりします。かといって、韓国にはお湯に浸かる文化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ゆっくりとお湯に浸かりたい時は銭湯やスパ、温泉、または「チムジルバン（韓国で近年、都市部を中心に急増している、50~90℃程度の低温サウナを主体とした健康ランドの一種。）」という施設を利用する人が多いです。特に銭湯は月極でも運営されるため、毎日のように行くのも可能です。また、ジムについている銭湯もありますので一気に利用の方がより便利だといいます。そしてチムジルバンではサウナだけでなく、漫画本を読んだり、パソコンでインターネットやゲームをするのも勿論できますので家族やカップルで行く人も多いです。

日本はシャワーとお風呂が一緒になっている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もありますが一般的には別々になっている家が多いです。

日本はシャワーをしてから湯船に浸かるというパターンが多い、体を浸かった後、そのお湯を捨てずに家族みんなで使う家もありました。そして寒い時期だけ入ってあとはシャワーだけで済ませる人もいれば、1年を通して湯船を使用する人も多いと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

なぜこんなに頻繁に湯船に浸かるのかに関しては様々な考えがありましたが、たいてい“健康”“美容”“落ち着く”などのイメージを思い出しました。多くの人は落ち着くため、リラックスするため、に湯船に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の最も大きい理由として日本のあらゆる「お風呂グッズ」を考えられます。多様な色や香り、効果の“入浴剤”やお風呂の水面に浮かせる“キャンドル”など、そういうお風呂グッズの種類も豊富にあります。もちろん韓国にもアカスリ用手袋などがありますが、まだまだお風呂グッズの方はそこまで発達していません。

次は「**日本と韓国の温泉**」の違いについても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韓国では日本のような天然温泉が少ないという意見が出ました。ところが、韓国にも温泉の種類が豊富にあり、温泉やサウナも日本で言う健康ランドみたいな形で日本と同じくらい沢山あります。お湯に浸かってリラックスするというでもあります。チムジルバンという施設が主流で、この施設は岩盤浴にとても似ています。したがって、湯船に浸かる時間よりこうしたサウナやチムジルバンなどの使用時間のほうが長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そして韓国のチムジルバンといえば、合わせて有名なのが「シッケ（甘酒に似たような甘い飲み物）」と「メッバンソクケラン（燻製卵）」です。

日本には火山が多いため、その火山による天然温泉もとても多く、有名な観光地もたくさんあります。全国各地の有名な天然温泉の中で、東京と近くて海外の観光客が大勢に尋ねる温泉が「硫黄温泉」と呼ばれる「箱根」の天然温泉で、この温泉と合わせて有名なのが「黒たまご」です。この黒たまごを1つ食べると7年長生きするという風に言われ、多くの観光客に愛されています。そして九州地方では、「湯布院」の露天風呂や「別府」の地獄めぐりなど、色んな天然温泉を集めた観光地で知られたところも多いです。そういうように、日本は温泉大国とも言われており、最近では日本も韓国と同じように温泉のほかにサウナや岩盤浴も人気があるようです。

今回は日本人の学生の場合、夏休みを兼ねて釜山での短期研修があったため、韓国のスパを実際に体験できる機会がありました。そこは温泉、サウナ、チムジルバンがすべて揃っている施設でしたが、「日本と全然違うな～」とは実感出来ないほどけっこう似ていました。日本も韓国もお湯に浸かる人はたくさんいましたが、ただ、韓国はお湯に浸かる人より、やはりサウナやチムジルバンを利用する人が多かったかなと思いました。

1グループ

蘭 理沙（アララギ・リサ）、有光 桃（アリミツ・モモ）、有瀬 里花（アリセ・リカ）
洪 性允（ホン・ソンユン）、文 晶垠（ムン・ジョンウン）、金 秀珍（キム・スジン）金 賢珠（キム・ヒョンジュ）、禹 松希（ウ・ソンヒ）、金 鉉淑（キム・ヒョンスク）

『한국과 일본의 목욕문화에 대하여』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목욕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있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욕조가 있습니다만, 집에서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입욕은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욕조에 이불을 넣고 밟아 빨거나, 그 욕조 속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는 입욕 문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롭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싶을 때에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혹은 온천이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욕탕은 월정액 요금으로 끊어 다닐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에 딸려있는 목욕탕도 있으므로 겸사겸사 같이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만화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인터넷도 이용하고 게임도 할 수 있으므로 가족끼리, 혹은 커플이나 친구끼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놀이와 휴식을 겸비한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샤워시설과 욕조가 함께 붙어있는 맨션이나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일본은 샤워를 하고 나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패턴이 많으며, 몸을 담그고 나서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등 추운 계절에만 입욕을 하고, 나머지는 샤워만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욕조를 몸을 담그는 사람도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입욕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건강", "미용", "진정효과"등의 이미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릴렉스하기 위해, 피로를 풀기 위해 욕조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서 일본의 여러가지 "목욕 굿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향기, 그리고 각종 효과를 내세운 "입욕제"나 입욕시 욕조에 띄우는 "촛불"등, 이러한 목욕 상품의 종류도 정말 풍부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때밀이 장갑 등을 판매합니다만, 아직도 목욕 굿즈라 할 정도까지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온천>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천연 온천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온천의 종류가 제법 풍부하여 온천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말하는 건강 랜드 같은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쌓인 피로를 푸는 식의 온천도 있지만, 찜질방이라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시설은 암반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 있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이러한 사우나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찜질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것이 식혜(일본의 감주와 비슷한 단 맛의 음료)와 맥반석계란(훈제계란)입니다.

일본에는 화산이 많기 때문에 화산에 의한 천연 온천도 매우 많고 그에 따른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천연 온천 중에서도 도쿄와 가깝고 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온천이 "유향 온천"이라고도 불리는 "하코네" 천연 온천이며, 이 온천과 함께 유명한 것이 "검은 달걀"입니다. 이 검은 달걀은 한 개를 먹으면 7년을 더 산다고 알려져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슈 지방에서는 유후인의 노천탕이라든지 벳부의 지옥 순례 등 다양한 천연 온천으로 이루어진 관광지로 알려진 곳도 많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온천 대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천 외에 사우나와 암반욕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번에 몇몇 일본인 학생의 경우, 여름 방학을 겸해 부산에서의 단기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스파를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온천, 사우나, 찜질방이 모두 포함되어 시설 이었지만, "일본과 전혀 다르구나!" 라고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꽤나 비슷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입욕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다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역시 사우나와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1그룹

아라라기 리사, 아리미츠 모모, 아리세 리카

홍 성윤, 문 정은, 김 현주, 김 수진, 우 송희, 김 현숙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パクジヘ ソンヒョンジャ ジャンユンヘ ジョンミンジ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くぼたもえこ ごとうはるか さとうさやか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風呂文化

韓国の風呂文化

韓国はお風呂に入ることより、シャワーを浴びることが一般的です。

お風呂に入るといことは体をキレイにするためであり、韓国ならではの風呂文化に欠かせないのが垢すりです。垢すりというのは湯船の熱いお湯に浸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その角質を取ることです。最近では垢すり文化が日本でも有名です。韓国でのお風呂は体が汚れた状態で湯船に入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から石けんなどを使って垢すりをするのです。

つまり、韓国はざっと体を洗って湯船に入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から出て垢すりをして水あるいはシャワーなどで体をきれいにするのです。

日本の風呂文化

日本は火山が昔から多いので温泉がたくさんあり、日本ならではの風呂文化が発達したといえます。日本のお風呂は普通ならば一回お湯を溜めたら家族みんな使います。基本的には目上の人から入りますが、時代の変化により今は先に帰ってきた人からお風呂に入ります。

また、お客様がいらっしゃる時にはお湯を変えたり、お客様を優先としてお風呂に入るようにしています。お風呂に入る前は、必ず体をきれいにしてから湯船に入ることになります。

日本のお風呂の文化と言うのは韓国と違って垢すりなどをしてまで体をきれいにするのではなく、その日にたまった体の疲れを取るためのことです。

つまり、日本はお風呂に入り、疲れをとってからのビール一杯に癒やされて寝床に入るといことです。

結論

‘汚れた体を洗いに行く’という韓国と ‘温かいお湯に体を浸す’という日本との考え方の違いがお風呂文化にも繋がったと思われます。人と人の間に情が深いという韓国の人々は銭湯に行き、手の届かない背中をほかの人に頼んでやってもらうことが出来る文化なのですが子供の時からほかの人には迷惑をか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教育を受けてきた日本の人々は銭湯でも周りを気をつけて行動します。このように文化の違いがそのままお風呂文化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を今回のレポートを通じて分かることができました。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희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츠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목욕문화

한국의 목욕문화

한국은 '목욕을 한다'라는 것 보다는 '샤워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목욕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때밀이' 입니다.

'때밀이' 라고 하는 것은 욕조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 몸에 있는 각질을 불려서 때를 미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때밀이' 문화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한국에서의 목욕은 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 각질을 불리고 난 후 비누칠을 한 뒤 '때밀이' 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대중 몸을 씻고 난 뒤 목욕탕에 들어가 각질을 불리고 나와서 '때밀이' 를 하고 물이나 샤워 등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목욕문화

일본은 화산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온천이 많이 있어 일본만의 고유한 목욕 문화가 발달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목욕은 보통 한번 물을 받으면 가족 모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웃어른부터 사용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오늘날에는 먼저 귀가한 사람부터 목욕을 합니다.

또한 집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물을 갈거나 손님의 우선으로 목욕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의 목욕문화 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달리 '때밀이' 등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일본은 목욕을 하면서 피곤을 풀고 난 뒤, 맥주 한잔으로 치유를 받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결론

'더러워진 몸을 씻으러 간다.'라는 한국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라는 일본의 생각의 차이가 목욕 문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정이 깊다라고 하는 한국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서 손이 닿지 않는 등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 가능한 문화입니다만,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를 끼쳐서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 온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조심 조심 행동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문화의 차이가 그대로 목욕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イジヨンジェ イカンチョン 이스ンヒョン 이옻키ョン 이ム헤진 오우케이
이정재, 이강천, 이승현, 이옥경, 임혜진, 오우케이
タカハシ ミホ ヒジカタ サヤカ サトウ ミキ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사토우 미키

<시작하며>

저희 3그룹은 한국과 일본, 각국의 목욕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각 국의 목욕문화에 관련한 용어와 대중목욕탕의 차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1) 두 나라의 목욕문화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목욕문화

먼저 한국에서는 목욕과 샤워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목욕이란, 뜨거운 물에들여간 뒤 몸을 불려 때를 미는것을 목욕이라고 부른다는 점 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탕에 들어가기 보다, 샤워를 하는 문화가 주류인데, 이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 일본의 목욕문화

일본은 각 가정마다 욕탕이 있을 정도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욕탕을 오후로 라고 부르며, 입욕목욕과 샤워 즉, 몸을 씻는 행위자체를 오후로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탕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형식의 목욕문화가 주류입니다.

3) 두 나라의 욕조 보급률

일본은 전통적으로 목욕문화가 발달한 나라로써, 한국에 비해서 입욕 가능한 욕조의 보급률이 높습니다. 각국의 입욕 가능한 욕조 보급률은 한국 70%, 일본 약 95%로써 일본이 보다 더 많은 욕조 보급률을 나타냈습니다.

**일본통계 - 통계국 2010년 자료, 한국통계 - 한국 주거학회 2013년 (단독주택 제외)*

(2) 각국의 대중 목욕탕의 차이점

1) 대중목욕탕의 차이점 조사

	한국	일본
이름	대중목욕탕	센토 (銭湯)
운영시간	24시간인곳이 많다	17시~0시처럼 운영 시간이 정해진 곳이 많다.
욕탕에 들어가기전에 샤워를 하는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대체로 한다. (암묵적인 룰)
세면도구 비치 유무	대부분 비치 되어있다.	별도로 구매 필요
수면실의 유무	반드시 있다	없다
목욕탕 내 사우나의 유무	반드시 있다	없는곳이 많다
목욕탕의 벽화의 유무	없다	있다 (주로 후지산)
목욕이 끝나고 마시는 것	바나나 우유, 식혜	커피우유

*한국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때밀이가 일본에서는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때를 밀어주는 종업원이 성별에 맞춰 존재하는 반면, 일본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카운터와 반다이

각국의 대중목욕탕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카운터(반다이)가 존재 합니다. 입욕전에 돈을 내고,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이 같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한국의 대중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의 카운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반다이는 하나로써, 두개의 탕을 한번에 관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다이에 누가 앉아있던 성별에 관계없이 그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목욕탕도 각각의 성별에 맞춰 종업원이 업무를 보는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한국인 학생 전원(5명)은 반다이에 자신과 다른 성별의 관리자가 있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사 표본 : 일본인 여성 19세 여성 3인, 한국인 남성 20대 1인 한국인 여성 20대 4인)

이상입니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3 組 >

イジョンジエ イカンチヨン イスンヨソ イオツキョソ イムヘジン オウケイ
李政宰, 李康天, 李乘然, 李玉京, 林惠眞, 王經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サトウミキ
高橋美穂、土方沙耶香、佐藤実希

<はじめに>

3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各国のお風呂文化について話しました。
また、各国のお風呂文化に関する用語や銭湯文化の差を比較しました。

(1) 両国のお風呂文化の概要

1) 日本のお風呂文化

日本では各家庭にお風呂があるほどお風呂文化が発達した国です。
浴室というのを日本では普通にお風呂と言ひ、入浴とシャワー、つまり体を洗う行為自体をお風呂に入ると言ひます。
日本では浴槽に入り、一日の疲れをとるかたちのお風呂文化が主流です。

2) 韓国のお風呂文化

韓国では沐浴とシャワーとに対するそれぞれのイメージがあります。
沐浴というのはお湯にはいり、しばらくした後、あかすりをするを沐浴と言ひます。
特に韓国では入浴より、シャワーをする文化が主流であり、これは沐浴というのは単純に体を清潔する一つの手段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からと思われます。

3) 両国の浴槽の普及率

日本は伝統的にお風呂文化が発達した国であり、韓国に比べてお風呂（浴槽）の普及率が高いです。各国のお風呂の普及率は、日本95%、韓国70%で、日本のほうが普及率が高いことがわかりました。

*参考資料 : 日本(通計局2010年資料) 韓国(韓国住居学会2013:一軒家を除く)

(2) 銭湯の比較

1) 両国の銭湯の差

	日本	韓国
名前	銭湯	大衆沐浴湯
営業時間	17時～00時までですところが多い	24時間のところが多い
お風呂に入る前にシャワーを するかどうか	だいたいする (暗黙的なルール)	する時もあるが、しない時もある
睡眠室の有無	特別なところでないといけない	ある
サウナの有無	特別なところでないといけない	ある
壁の絵の有無	ある(主に富士山)	ないところが多い
石鹸やシャンプーなどが無料 でもらえるかどうか	買わないといけない	無料でもらえる
お風呂あがりに飲む飲み物	コーヒー牛乳	バナナ牛乳、シッケ

*日本では見かけにくいあかすりが韓国では銭湯に欠かせないものだと分かりました。また韓国ではあかすりをしてくれる従業員など、男性は男湯、女性は女湯で働くことがわかりました。

2) 番台とカウンター

各国の銭湯には銭湯を管理する番台(カウンター)があります。入浴の前にお金を払ったり、他にシャンプーや歯ブラシなど、必要な物品が買えるという共通点がありますが、日本の番台は一つで二つの湯を管理するのに対し、韓国のカウンターは男湯と女湯に一つずつあり、湯の性別に合わせた係が管理します。

(現在、日本の銭湯の番台も男湯は男性が、女湯は女性が管理す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また、グループ内の学生全員(8人)は番台に自分と違う性別の人がいることに抵抗感をあらわしました。(日本人女性 19歳 3人、韓国人男性 20代 1人、韓国人女性 20代4人)

以上です。

日本と韓国に住居比較

한국과 일본의 주거

한국과 일본의 주거
비교



1グループ

あららぎ りさ 蘭 理沙 (아라라기 리사) 、 ありみつ もも 有光 桃 (아리미츠 모모)

ありせ りか 有瀬 里花 (아리세 리카) 、 ホンソンユン 洪性允 (홍성운) 、

문정은 文晶垠 (문정은) 、 김현주 金賢珠 (김현주) 、 김수진 金秀珍 (김수진) 우송희 禹松希

(우송희) 、 김현숙 金鉉淑 (김현숙) 、 ナハナ (나하나)

日本と韓国の住居に関する比較

1.契約システム(賃貸の場合)

※**日本**:契約時に1~2ヶ月分の敷金(保証金)、礼金を払います。

敷金(保証金)は家賃の滞納や部屋を引越す時に、修理が必要になった時など、この敷金(保証金)から差し引いて修理費用がまかなわれるので、返してもらえない場合もあります。

※**韓国**:「ウォルセ」と「チョンセ」と呼ばれる契約システムがあります。ウォルセとは日本の家賃のように毎月決められた額を払います。契約時に保証金を払いますが、この保証金の額が多いほど家賃が少なくなる特徴があります。保証金は契約期間終了時全額返してもらえます。

(ex.保証金1000万ウォン/家賃50万ウォン
=保証金3000万ウォン/家賃30万ウォン)

チョンセとは契約時に大金の保証金を払うことで、月々家賃を払う必要がないというシステムです。

韓国はお金に余裕があるほど家賃の負担がないという事が分かりました。日本は韓国に比べると家賃が約2~3万円高いという意見があり、留学生にとって一ヶ月の支出のうち一番多く占めるのは家賃だと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

2.引越し祝い

※**日本**

引越し祝い：中古住宅を購入して引越した場合や賃貸から賃貸へ引越した場合、職場や近所でお世話になった方が、賃貸の借り換えで引越す際に贈る「餞別」のことをいいます。

新築祝い：新しく家を建てたり、新築のマンションを購入して引越した場合のお祝いです。

※韓国

韓国では引越しお祝いのことを「チプトゥリ」といいます。引っ越しをしたら、親戚や友達、知り合いなどを招待し、もてなしします。

3.引越し祝い&訪問マナー

※日本

訪問する時に持っていくものは特に決っていませんが、お菓子やケーキ、お酒などを持っていく場合が多いです。持っていったものは部屋に入って挨拶を交わした後に渡します。引越し祝いで避けた方がいいものは、「火」を連想させるキャンドルやトースタ、ストーブなどです。他には、玄関で脱いだ靴を自分で下駄箱の方に揃えておきます。

※韓国

韓国は引越し祝い（チプトゥリ）をする時にトイレットペーパーや洗剤などの生活用品をプレゼントするのが一般的ですが、最近では柱時計やキャンドルなどのインテリア雑貨をプレゼントすることも多いです。持っていったプレゼントは家に入ったら玄関で渡し、脱いだ靴は家の人片付けます。

訪問マナーにも文化の違いがあると知らなかったという意見が多く、日本人の知人から招待された時には韓国のお土産やお菓子、お酒などを持って行ったと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

일본과 한국의 주거비교

1.계약시스템(임대의경우)

※**일본** : 계약시1~2개월분의시키킹(보증금), 레이킹을 지불합니다.
시키킹(보증금)은 야칭의 체납이나 이사를 하였을시,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
시키킹(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수리를 하기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 '월세'와'전세'라고하는 계약시스템이있습니다.
월세란 일본의야칭과같이 매달 정해져있는 금액을 지불하는 시스
템입니다. 계약시 보증금을 지불하지만,이 보증금의 금액이 많을수
록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
약기간이 끝나면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보증금1000만원 / 월세50만원
= 보증금3000만원 / 월세30만원)

전세란계약시 많은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매달
월세를 지불하지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월세비용이 적어지거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달마다 지불하는 금액이 평균20만원~30만 원 정도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학생에게 있어서 한달 지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이사축하행사

※**일본**

이사축하 : 중고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을 경우나 임대에서 임대로 이사했을 경우, 또는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선물을 주거나 축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사축하 : 새로운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거나, 신축맨션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축하하는 행사이다.

※한국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고나면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3.이사축하&방문매너

※일본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자나 케익, 술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간 선물은 방에 들어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나서 건네줍니다. 이사 축하시 하지말아야 할 선물은 '불'을 연상시키는 양초나 토스터, 스토브 등 입니다. 그 외에 지켜야 할 매너에는 집에 들어서 벗은 신발은 신발장 쪽으로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 등 입니다.

※한국

한국은 집들이를 할 때 두루마리휴지나 세제등의 생활용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벽시계나 양초등의 인테리어 잡화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져간 선물은 현관에서 건네주며 벗어놓은 신발은 집주인이 정리를 합니다.

방문매너에도 문화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본인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의기념품이나 과자, 술 등을 가지고 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 パクジヘ / ソンヒョンジャ / ジャンコンヘ / ジョンミンジ /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 くぼたもえこ / ごとうはるか / さとうさやか /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引っ越し

韓国では“引っ越し祝い”という引っ越したお家に知り合いを招待して引っ越しをお祝う文化があります。引っ越し祝いに行く際にはお菓子や洗剤、生活用品などを持って行きますが、大体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持って行く場合が多いです。その理由は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巻くときの動作が運を引き起こすという説があります。

日本ではお菓子や洗剤などを引っ越し祝いプレゼントとして持って行きます。そして火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ものは絶対に持って行っては行けません。服装も火を思い出させる赤い色はなるべく控え、物ではなくお金を渡す場合もあります。ちなみに、韓国では火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物を持って行っても大丈夫だそうです。

このように引っ越しをした人に招待された時に、韓国も日本も招待してくれた人が新しい環境で上手く行けますようにという気持ちを込めて小さなプレゼントを持って行く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住宅

韓国でアパートと呼ばれるのが日本の高層マンションの意味をし、日本でマンションと呼ばれるのが韓国のアパートの意味をします。お互いに反対の意味を持っているので時々会話の混乱を引き起こしたりします。

日本のマンションの壁は厚くなっていますが、アパートはそれより薄く造られているので防音性はちゃんと出来ていないという短所があり、アパートよりマンションの方が高級なイメージが強く韓国はこれらと正反対です。

日本の家は家具がない場合が多く、韓国と比べてみれば部屋が狭く家賃が高いです。そして日本は地震が多い国であるため、耐震対策がしっかりと出来ている半面、韓国は耐震対策をしないので小さな地震にも危ないです。

韓国では“チョンセ”という日本にはない制度があります。この“チョンセ金”というのは金額の高いお金を大家さんに預けたあと、毎月家賃を払わなくても良いという制度で、他のところに引っ越す際に“チョンセ金”の全額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現在は金利が低くなったのでチョンセ金がとても高くなっており、毎月支払う家賃を好む傾向が多くなっています。

周りの環境によって住宅の建築から生活まで多くのところが異っている韓国と日本ですが、人々がゆっくりと安らげて安定感のある家を造り、その家で暮らしていくために工夫をするところは同じだと言えます。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혜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즈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이사

한국에서는 “집들이” 라고 하는 이사 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서 이사를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집들이에 갈 때에는 과자나 세제, 생활용품 등 가져갑니다만 대부분 화장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지를 마는 동작이 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자나 세제 등의 집들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을 연상시키는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복장도 불을 연상시키는 빨간색은 되도록 입어서는 안되며 물건이 아닌 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불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를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 한국도 일본도 초대해준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택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은 일본의 고층 맨션을 뜻하며, 일본에서 맨션이라 불리는 것은 한국의 아파트를 뜻합니다.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대화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맨션의 벽은 두껍게 만들었으나 아파트는 그보다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아파트보다는 맨션이 고급 이미지가 강하며 한국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집에는 가구가 없는 곳이 많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방이 좁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공사가 잘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내진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지진에도 위험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세” 라고 하는 일본에는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긴 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있으며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주택의 건축에서부터 생활까지 많은 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지만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이정재, 이강천, 이승현, 이옥경, 김현아, 임혜진, 오우케이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나카무라 미이나, 사토우 미키

<시작하며>

저희 3그룹은 한국과 일본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비교하였으며, 각국의 주거지의 비율과, 욕실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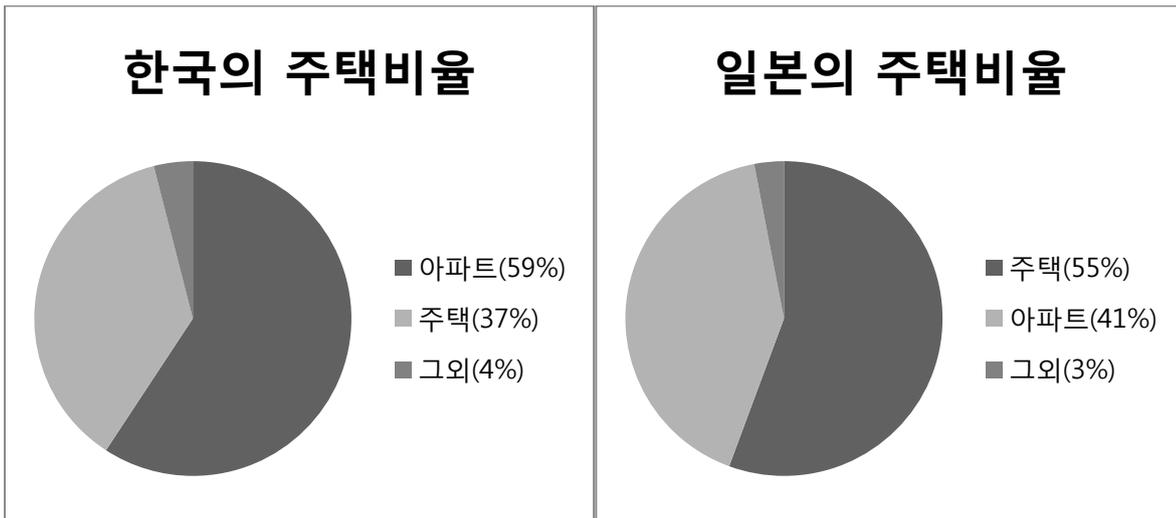
1) 주거지의 용어 비교

한국	일본
아파트 (アパート)	맨션 (マンション)
단독주택 (単独住宅)	독채집(一軒家)
연립 주택 (連立住宅)	아파트 (アパート)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한국의 경우, 한 층에 2가구의 주택이 많은 반면, 일본은 복도식으로 한 층에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주거지의 비율

대체로 한국 에서는 아파트, 일본 에서는 독채집의 선호도가 높으며, 각국의 아파트와 독채집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통계청의 2000년도 자료이며, 일본의 경우 2014년전국 데이터 사이트에서 참조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엔 다세대주택이 포함됐으며, 일본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 포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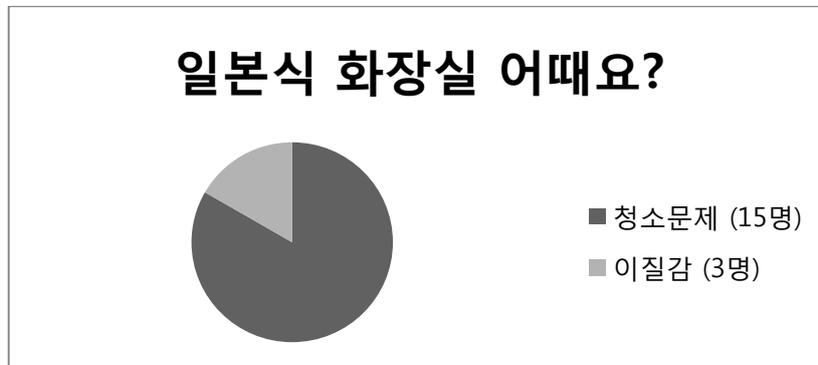
3) 욕실&화장실

한국의 경우 변기와 욕조가 함께 있는 유니트 배스가 보통이며, 일본의 경우는 변기와 욕실이 따로 떨어져있는 화장실(혹은 욕실)이 보통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특히 유니트 배스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조사 표본은 관동 지방의 20-30대의 일본 남녀 20명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유니트 배스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해 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조사 결과, 20인 모두 유니트 배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본의 욕조와 화장실이 각각 떨어져 있는 문화를 설명했는데, 재미있게도 18명의 응답자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사 표본은 서울 거주 20-30대 남녀 18명입니다.*

한국인들이 욕실과 화장실이 따로있는 화장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유로 청소문제가 언급되었는데(15명), 이는 변기를 물청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3 グループ >

イジョンジェ, イガンチョン, イスンヨン, イオクキョン, キムヒョンア, イムヘジン, オウケイ
李政宰, 李康天, 李乘然, 李玉京, 金鉉亞, 林惠眞, 王經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ナカムラミイナ, サトウミキ
高橋美穂, 土方沙耶香, 中村実衣奈, 佐藤実希

<はじめに>

3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の住居文化を比較し、各国の住居の比率や、浴室（トイレとお風呂）に対するイメージ調査を実施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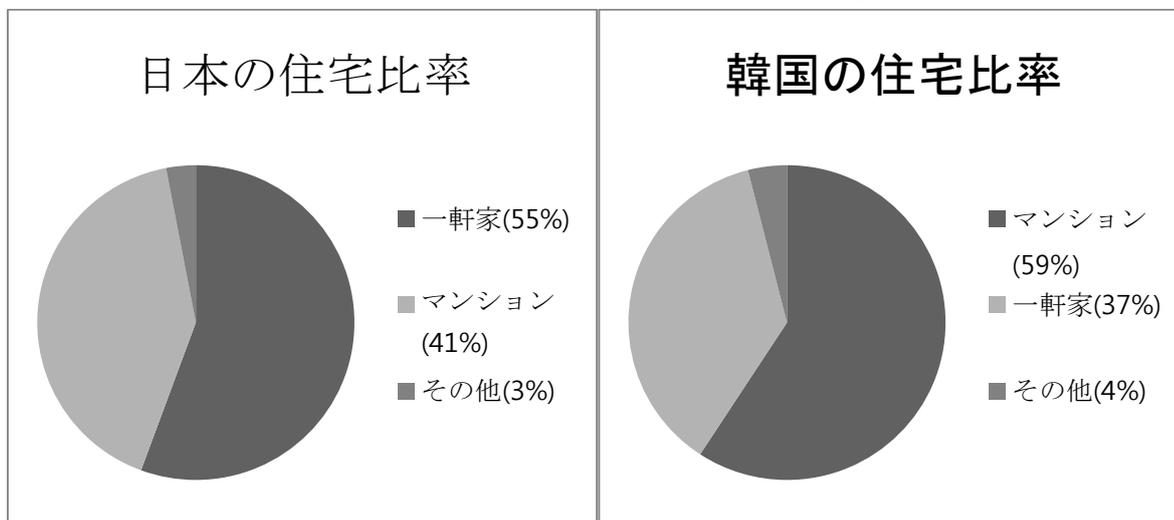
1) 用語比較

日本	韓国
一軒家(독채집)	単独住宅(단독주택)
マンション(맨션)	アパート(아파트)
アパート(아파트)	連立住宅(연립주택)

*多世帯住宅の場合、日本は廊下式の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が多く、一階にたくさんの世帯が住むところが多いですが、韓国は一階に2つの世帯が住むところが多いです。

2) 住宅の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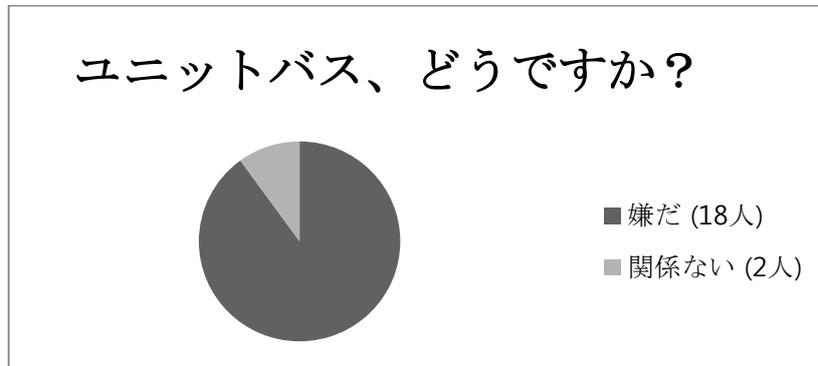
日本では一軒家、韓国ではマンションを好む比率が高く、各国の一軒家とマンションの比率は次のようです。



* 日本は2014年の都道府県データを参考し、韓国は韓国統計庁の2000年度の資料です。
日本のマンションには共同住宅が含まれていて、韓国のマンションではアパートも含ま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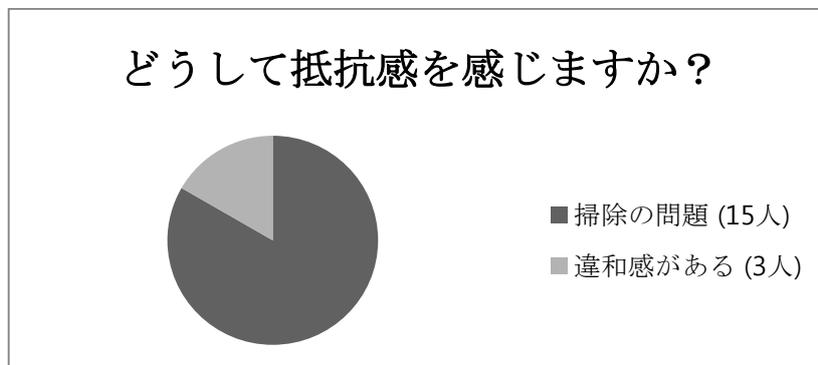
3) お風呂&トイレ

韓国の場合、ユニットバスが普通であり、日本ではトイレとお風呂が別れているのが普通です。特に日本人の場合、ユニットバスに抵抗を感じる人が多かったです。



*調査した人は関東在住の20 - 30代の日本人の男女20人です。

しかし、韓国人の場合、ユニットバスという言葉さえ知らないと答えた人も多く、調査の結果、20人の韓国人はすべてユニットバスに抵抗感がないと答えました。逆に彼らに日本の別々式のトイレ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が、面白いことに、20人の18人は抵抗感を表わしました。



*調査した人はソウル在住の20 - 30代の韓国人の男女18人です。

韓国人がトイレとお風呂が別れているトイレに抵抗感を感じた理由の中で、一番多く指摘された、掃除の問題は、トイレ全体を水で流して掃除できないことが理由として指摘されました。

韓国と日本の結婚式

1グループ



あたらぎ り さ
蘭 理沙 (아라라기 리사)、

ありみつ もも
有光 桃 (아리미츠 모모)、

ありせ り か
有瀬 里花 (아리세 리카)、

ホンソンユン 洪性允 (홍성운)、ムンジョンウン 文晶垠 (문정은)、キムヒョンジュ 金賢珠 (김현주)、ウソンヒ 禹松希

(우송희) 키ムヒョン숙 金鉉淑 (김현숙)、ナハナ (나하나)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결혼식 문화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진행방식, 초대 및 답신, 결혼식의 소요시간, 참가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축의금 금액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가장 빛나야 할 신부를 위해 흰색 계열의 옷은 입고 가지 않는대거나,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의식인 만큼 둘로 나눠 질 수 있는 짝수 금액은 축의금으로서 기피한다거나 하는 등 밑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의식은 두 나라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미 주고 받은 이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결혼식에 실제로 가봤던 경험에 비추어 최근의 결혼식 문화와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한국의 결혼식은 폐백까지 포함하면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예식장은 사진과 같이 양쪽으로 나뉘어 한 쪽은 신랑쪽 가족과 손님, 다른 한 쪽은 신부쪽 가족과 손님이 앉아 식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예식장도 있지만 신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블랙톤의 예식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부대기실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본식에 앞서 세세한 준비를 하거나 결혼식에 와 준 가족이나 친구와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이 때 신랑은 식당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잘 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나눕니다. ☞



☞ 본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당(대부분 뷔페식.웨딩홀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에 가서 먼저 식사를 할 동안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측의 직계 가족들은 폐백실로 이동하여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 폐백을 치릅니다. 본식에서처럼 양 쪽으로 나뉘어 앉은 양가 가족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절을 하며 덕담을 듣고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져 다산을 기원합니다.

폐백이 끝나면 다시 옷을 갈아입은 뒤,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이 식사 중인 식당으로 와서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보통은 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가 많은데 그럴 경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하는 반면, 비행기 시간 등의 이유로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한복으로 갈아 입고 인사를 합니다. 혹시 바빠서 식사를 못하는 하객에게는 와인이나 현금 등 따로 선물을 줍니다. ☞



이렇듯, 한국의 결혼식은 전통혼례나 교회나 성당에서의 결혼식은 드문 편이다 보니 조금은 일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멀리 사는 친지들이나 부모님의 지인들도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편인데, 결혼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 만큼 하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신사 결혼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신사나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초대를 하고, 참가하겠다는 답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 좌석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초대장을 나눠주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식당에 도착하면 한국과 달리 바로 신랑과 신부를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좌측의 사진과 같이 원형 테이블에 저마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있으며 입구에서 테이블 배치도가 그려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문을 받으며 준비해 온 축의금을 건네는데 멀리서 온 사람의 경우, 신랑 신부가 미리 소정의 경비를 따로 준비해서 건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우선, 신사에서 가족을 비롯,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경건한 식이 진행되는데, 이 때 신부가 입는 시로 무쿠(白無垢)가 신사식으로 진행되는 일본 결혼식의 가장 눈에 띄는 큰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전통 결혼식'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신부가 쓴 하얀 고깔 같은 모자일 겁니다.

신사내에서의 식이 끝나면 신랑신부는 기모노로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예식이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준비된 음식이 차례로 나옵니다. 신랑신부 양측의 대표자 (부모님이나 형제, 학교나 회사의 선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 신랑신부에게 쓴 편지를 읽는 시간도 있고, 연애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음악과 함께 편집한 영상을 하객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축하술통(祝い樽酒)]라고 하여, 수(壽)가 적힌 대나무 술통의 마개를 신랑신부가 함께 나무 망치로 깨는 제스처를 하여 마개를 연 다음 그 안에 든 술을 함께 나눠 마시며 두 사람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



☞ 다음으로 웨딩드레스와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와서 하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이 결혼식의 경우 신랑이 맥주 가방을 메고 사람들에게 맥주를 나눠주고, 신부가 곁에서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나눠주며 인사를 주고 받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또, 식이 끝나면 신랑신부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 받는데, 보통 결혼식 날짜가 새겨진 타올, 혹은 케이크류라고 합니다. ☞



☞ 이렇게 식이 끝나면 보통 오후 늦은 시각이 되는데, 일본의 2차 파티(한국의 피로연)은 장소를 옮겨 카페나 바 등을 빌려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부도 웨딩드레스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칵테일드레스를 입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지들은 보통 피로연에 참석하지 않고, 또한 피로연은 장소에 따라 2~3천 엔 정도를 회비로 걷어 신랑신부에게 전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참석하므로 자유롭게 술과 케이크 등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사정이 있어 낮에 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피로연에 참석하기도 하므로 다같이 파티를 하는 느낌으로 밤늦게까지 피로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결혼식이 서너 시간에 끝나는데 비해 일본의 결혼식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듯 결혼식의 방식이나 소요시간, 금액 등 다양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결혼을 축하하고 행복을 비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韓国と日本の結婚式]

授業で映像を見ながら友達と意見を交わしあった結果、韓国と日本の結婚式文化には様々な違い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結婚式の進行方法、招待ならびに返信、結婚式の所要時間、参加者との関係、そして祝い金の金額まで大きな違いがある部分が多かったのですが、新婦を輝かせるために白っぽい服は着て行かない、二人が出会い一つになる結婚という神聖な儀式であるからに2で割り切れる偶数の金額は祝い金として避けるなど、根底にある基本的な意識は両国ともに同じであると言え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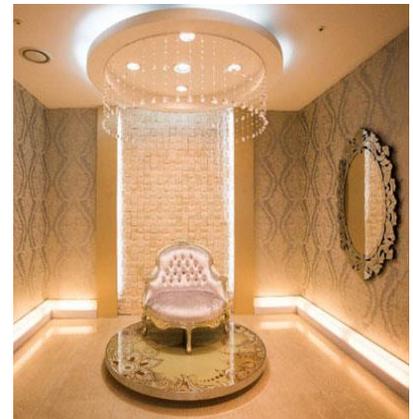
今回のレポートでは授業ですでに交えた話より韓国と日本、両国の結婚式に実際に行ってみた経験に照らして近頃の結婚式文化との違いについて見てみようと思います。



➡ まず、韓国の結婚式はペク（幣帛：婚礼の新婦が舅と姑にまみえる儀式）を含めると約3時間の所要で式場は左写真のように両側に分かれ一方は新郎側の家族と招待客、もう一方は新婦側の家族と招待客が座り式を見守ります。全体的にホワイトトーンの式場もありますが新婦をより目立たせるためにブラックトーンの式場も増えています。

新婦待機室はウエディングドレスを着た新婦が本式に先立ち細々とした支度をしたり、結婚式に来てくれた家族や友達と写真を撮ったりする場所です。➡

この時、新郎は式場の入り口でお客様にしっかり暮らしていきます、来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ど挨拶を交わします。



➡ 本式が終わり祝い客たちはレストラン（大部分がビッフェ式でウエディングホールと同じ建物へ位置）に向かい先に食事をしている間、新郎と新婦、そして両者の直系家族たちはペク室に移動し韓服に着替えた後、ペクが行われます。本式でのように両側に分けて座る両者の家族に新郎と新婦と一緒に礼拝をしながら幸せを祈る言葉を交わし、新郎の母は新婦のスカートにナツメと栗を投げて多産を祈願します。

ペベクが終わると再び服を着替え、新郎と新婦は祝い客が食事をしているレストランに向かい、祝い客に対し挨拶をしていきます。普通は式が終わるとすぐに新婚旅行に行く夫婦が多いですが、そのような場合普段着に着替え挨拶をしたり、飛行機時間などの理由で結婚式の翌日に新婚旅行に行く場合には韓服に着替え挨拶をします。忙しくて食事ができない祝い客にはワインや現金など別にお土産を渡します。



このように韓国の結婚式は伝統婚礼や教会や聖堂での結婚式は多くないほうであるのを見ると、少しは一律的であると言え、また遠くで暮らす知り合いや両親の知人もたくさん来てくれるので人々が集まりますが、結婚した二人の未来を祝福する人たちが集まるものなので祝い客がたくさん来れば来るほど良いという傾向があります。

次は日本の神社で行う結婚式を見ていきます。日本は今も神社や寺で結婚式を挙げる人が多いですが、まず招待をして参加するという返信がある人に限り席を準備するためにすこし早く招待状を配り日程を調整できるように配慮します。



式場に到着すると韓国とは異なりすぐに新郎新婦と会うことはできません。左写真のように円形のテーブルにそれぞれ各自の名前が書かれており、入り口でテーブル配置図が書かれた案内文をもらいます。

入り口で案内文を受け取り準備してきた祝い金を渡すのですが、遠くから来た人の場合、新郎新婦があらかじめ所定の費用を別に準備してくれる場合も多いです。



まず神社で家族をはじめ、少数の人だけ参加する敬虔な式が行われますが、この時新婦が着る白無垢が神社で行われる日本の結婚式で最も目に付く特徴です。韓国人に「日本の伝統結婚式」といえばまず最初に浮かぶのがまさに新婦が被った白い頭巾のような帽子のはずです。

神社での式が終われば新郎新婦は着物に着替え式場に移動し結婚式が行われますが、このときに準備された食事が順番に出てきます。新郎新婦の両者の代表者（両親や兄弟、学校や会社の先輩の場合が多いです）が新郎新婦宛てに書いた手紙を読む時間が設けられており、結婚前の思い出が詰まった写真を音楽と一緒に編集した映像を祝い客に見せたりもします。

写真のように『祝い樽酒』といい、『寿』と書かれた竹の酒樽の蓋を新郎新婦と一緒に木の槌で割り、蓋を開けてその中に入っているお酒を一緒に分け飲みながら二人の未来を祈願します。☞



☞ 次にウェディングドレスと礼服に着替え祝い客が座っているテーブルに行き、一人一人に挨拶をしたり写真を撮ります。この結婚式の場合、新郎がビールサーバーを背負いビールを分け新婦が横でおつまみを分けて挨拶を交わし、とても印象的でした。

また、式が終わると新郎新婦が準備したお土産を受け取りますが、普通日付が刻まれたタオルやケーキ類だといいます。☞



☞ 式が終わると普通は午後の遅い時間になりますが、日本の披露宴は場所を移しカフェやバーなどを貸し切り、軽い雰囲気で行われるため新婦もウェディングドレスより簡単なカクテルドレスを着ます。両親や親戚の方々は普通披露宴に参加せず、また披露宴は場所によっては2～3千円ほどを集めて新郎新婦に渡したりしますが、主に友人と会社の同僚たちが参加するため自由にお酒とケーキなど準備されたものを分けて食べながらゲームをしたりもします。事情があり昼に行う結婚式に参加できない友人たちが披露宴に参加したりもするのでみんな一緒にパーティーをする感覚で夜遅くまで披露宴をすることもあると言います。よって韓国の結婚式は3～4時間で終わるのに比べ日本の結婚式は朝から夜までするという感じが強いです。

このように結婚式の方式や所要時間、金額など多様な面で違いがありますが、韓国と日本の両者とも、二人が出会い一つになる結婚を祝い幸せを祈る気持ちは同じのようです。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パクジヘ ソンヒョンジャ ジャンユンヘ ジョンミンジ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くぼたもえこ ごとうはるか さとうさやか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結婚式

日本の結婚式では一人分の料理の量がコースで提供されるように決まっているので、来る人数を把握するために結婚式の招待状は返信用ハガキなどを使い、結婚式に出席か欠席かを知らせなければいけません。しかし韓国の結婚式はブッフェなので人数を把握する必要がなく、招待状の返事をしなくても良いです。そのため、最近では電話やSNSなどで招待する人も多いです。

結婚式のご祝儀の相場は日本では、会社の同僚や友人の場合3万円、親戚の場合5万円程度です。韓国では、会社の同僚や友人の場合日本のお金で約、5千円～1万円、親戚の場合3万円程度です。また、日本ではご祝儀袋をふくさに包みますが、韓国ではお金をふくさに包まずに結婚式場に用意されている白い封筒に入れます。

結婚式での服装は、日本も韓国もほぼ変わりません。親族は、日本では着物、韓国では韓服（韓国の伝統衣装）を着ることが多く、女性は白ではない明るい色で綺麗目のワンピース、男性はスーツを着ます。また、日本も韓国も結婚式中衣装を着替える’お色直し’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日本では、ウェディングドレスか’白無垢’という白い着物などの和装から、鮮やかな色のドレスに着替えたりします。韓国ではウェディングドレスから韓服に着替えます。最近、日本では最近では和装よりもウェディングドレスからカラードレスに着替える人が多いです。

韓国には結婚式のあとにペベクという家族だけで行う儀式があります。ペベクでは、'子供をたくさん授かりますように'という願いを込めて、新郎新婦が広げた布の上に新郎新婦の両親が棗を投げます。

日本の結婚式は半日ほどかかりますが、韓国では結婚式自体からペベク終わるまでまで1時間ほどかかります。また日本では結婚式が終わって一段落してから新婚旅行に行きますが、韓国では結婚式が終わった翌日にすぐ新婚旅行に行く人が多いです。

日本と韓国には伝統結婚式文化がありますが、今は西洋の結婚式文化が定着しているのが現実です。複雑な伝統結婚式より簡単で華やかな西洋の結婚式を好むためです。両国の伝統服装の着物と韓服(ハンボク)が、現在は平常服ではないように結婚式の文化も同じですが、伝統結婚式の長所を最大に生かしてその命脈を保つことを望みます。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혜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즈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결혼식

일본의 결혼식에서는 1인분의 요리의 양이 코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파악 하기 위하여 결혼식 초대장은 답장용의 엽서를 사용하고, 결혼식에 참가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혼식은 뷔페형식이기 때문에 인원 수를 파악할 필요가 없고, 결혼식 초대장에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전화나 SNS로 초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의 시세는 일본에서는, 회사 동료나 친구의 경우 3만엔(한화 약 30만원), 친척의 경우 5만엔(한화 약 50만원) 정도 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나 친구의 경우 일본 돈으로 약 5천엔~1만엔 (한화 5만원~10만원) , 친척의 경우 3만엔 (한화 약 30만원) 정도 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축의금 봉투를 작은 비단보에 두릅니다만, 한국에서는 돈을 비단 보에 두르지 않고 결혼식장에 준비되어 있는 하얀 봉투에 넣습니다.

결혼식에서의 복장은 일본도 한국도 거의 같습니다. 친척의 경우 일본에서는 기모노(일본전통의상),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하얀색이 아닌 밝은 색의 단정한 원피스, 남성은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도 결혼식 중 의상을 갈아입는 '오이로나오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웨딩드레스이거나 '시로무쿠' 라고 하는 하얀기모노등 일본식 전통의상으로부터 색이 선명한 드레스로 갈아입습니다. 한국에서는 웨딩드레스 에서 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식 전통의상보다도 웨딩드레스로부터 컬러드레스로 갈아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후 폐백을 가족끼리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폐백에서는,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라는 소원을 담아, 신랑신부가 펼친 천 위에 신랑신부의 부모가 대추를 던집니다.

일본의 결혼식은 반나절 정도가 걸립니다만, 한국에서는 결혼식과 폐백이 끝나기 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일단락을 짓고 나서 신혼여행에 갑니다만,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날에 바로 신혼여행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전통 결혼식 문화가 있으나 지금은 서양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잡한 전통 결혼식보다는 간단하고 화려한 서양 결혼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전통복장인 기모노와 한복이 현재는 평상복이 아니듯 결혼식 문화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통 결혼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イジヨンジエ イスンヒョン イオツキョン イムヒョジン オウケイ
이정재, 이승현, 이옥경, 임혜진, 오우케이
タカハシ ミホ ヒジカタ サヤカ サトウ ミキ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사토우 미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3組 >

イジョンジェ イスンヨン イオクキョン イムヘジン オウケイ
李政宰, 李乘然, 李玉京, 林惠眞, 王經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サトウミキ
高橋美穂 □ 土方沙耶香 □ 佐藤実希

<はじめに>

私たちのグループは日本□韓国□中国の3つの国の結婚式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同じ結婚式でも異なる違いを話し合い□まとめてみました。

1. お金について

1) 金額

日本 : 割り切れる金額がふさわしく、3万円が普通。

韓国 : 3, 5, 10, 20, 30万ウォンの順に出す。

中国 : 200, 500, 1000元の順に出す。

2) お祝い金を入れる封筒のきまり

日本 : 甲事に使ってはいけなく、金銀、または紅白の結び切りやあわじ結びの水引がかかったものを使う。そして、中に入れるお金は新札を用意する。

韓国 : 特にきまりがなく、きれいな封筒に自分の名前を書いて出す。

中国 : 赤い封筒に入れて出す。

3) 結婚式の場所が遠い時の交通費

日本 : 新郎新婦が交通費はあまりださず、祝儀を減らすことが多い。

韓国 : 招待した側がバスを借りて、バスの中での食べ物や飲み物などもすべて新郎新婦が用意する。

中国 : 交通費は出さないが、ホテル代など、宿泊費を出す。

4) まとめ

日本、韓国、中国はお祝い金の金額はあまり変わらないのがわかり、日本は封筒などにお金をかけるのに対して、韓国と中国はあくまでも招待した側として交通費などにお金をかけるのがわかりました。

2. 服装について

1) 結婚式に参席する際の服装

日本 : 男性はスーツが多く、女性は白以外のドレスやワンピースを着ることが多い。

韓国 : 男性はスーツが多いが、女性は日本のようにドレスをあまり着ない。

カジュアルな服を着て参席しても構わない。(ジーパンでも大丈夫)

中国 : 黄色い服は離婚を意味するため、着てはいけない。

スーツを着ることが多い。

2) 新郎新婦の親の服装

日本 : 母は着物を、父はスーツを着ることが多い。

韓国 : 「韓服(着物のような韓国の伝統服)」は母と親戚の戚母と兄弟の中で結婚している

女性が着る。父はスーツを着る。

(新郎の母 >青系、新婦の母 >赤系を着る)

中国 : 最近はスーツを着ることが多い。

3) まとめ

最近、日中韓、3国の結婚式の際に伝統服を着ることよりスーツのような現代的な服を着る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ことを分かりました。特に男性のほうにそのような傾向が強ま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시작하며>

저희 그룹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결혼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같은 결혼식 일지라도, 각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돈에 대해서

1) 금액

한국 : 3, 5, 7, 10, 20, 30 만원 순으로 낸다.

일본 :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 어울리며, 3만엔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 : 200, 500, 1000 위안 순으로 낸다.

2) 축의금을 넣는 봉투

한국 :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깨끗한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낸다.

일본 : 조사(弔事)를 써서는 안되며, 금은 또는 홍백의 끈이나, 동그랗게 묶은 끈이 걸린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봉투에 넣는 축의금은 새 돈을 준비한다.

중국 : 빨간 봉투에 넣어 낸다.

3) 결혼식의 장소가 멀 때 의 교통비

한국 : 초대할 쪽이 버스를 대절하여 버스 안에서 먹는 음식이나 음료 등은 모두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일본 : 주최측이 교통비를 내는 것은 적고, 축의금을 줄이는 일이 많다.

중국 : 교통비보다는 호텔비 같은 숙박료를 낸다.

4) 정리

한국 일본 중국은 축의금의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일본은 봉투 등에 돈을 쓰
쓰는 것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어디까지나 주최측으로써 교통비 등의 돈을 쓰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2. 복장에 대해서

1) 결혼식에 참석 할때의 복장

한국 : 남성은 정장이 많고, 여성은 드레스 보다는 캐주얼 한 스타일의 정장을 많이 입는다.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캐주얼 한 스타일의 옷도 가능하다.

일본 : 남성은 정장이 많고, 여성은 흰색 이외의 드레스를 입는 것이 많다.

중국 : 황색의 옷은 이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어서는 안 된다.

2) 신랑신부 부모의 복장

한국 : 한복은 어머니와 친척의 친가 어머니와 형제들중 결혼한 여성이 입는다.

(신랑의 어머니-> 청색 계열, 신부의 어머니->적색 계열) 아버지의 경우 정장이 일반적.

일본 : 어머니는 기모노를 입으며, 아버지는 정장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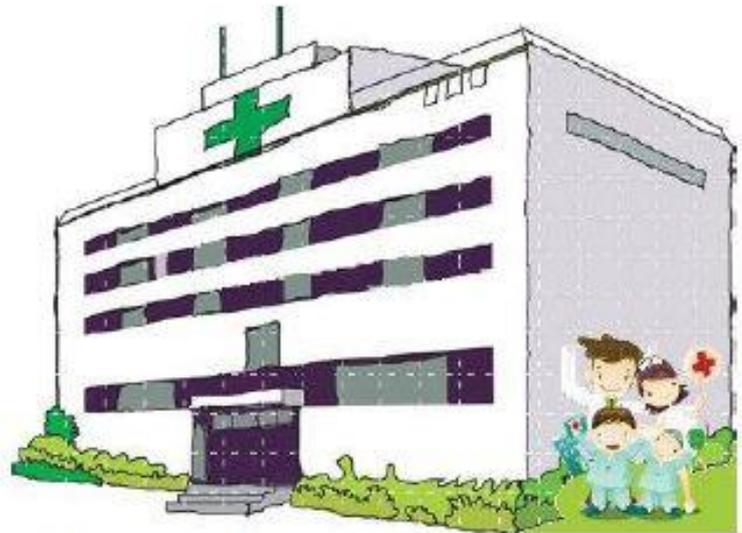
중국 : 정장을 입는 것이 일반적 이다.

3) 정리

최근 한중일 3국의 결혼식때 입는 옷은 전통복장 보다 정장과 같은 현대적인 옷을 입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日本と韓国 お見舞い

1 グループ



あたらぎ りさ ありみつ もも ありせ りか
蘭 理沙・有光 桃・有瀬 里花

ホン ソンユン ムン ジョンウン キム ヒョンジュ
洪 性允・文 晶垠・金 賢珠

ウ ソンヒ キム ヒョンスク
禹 松希・金 鉉淑

『 お見舞い 』

今回は日韓のお見舞いについてグループで話してみました。

まず、**日本**ではお見舞いに行って良いのかを先に確認し、行くことになったら**面会時間**が長くなるように、30分程度が良いと思います。その際、**大人**の人数や小さい子連れのお見舞いは避け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これは、子供は学校などを經由してウイルスを持ちこんでしまう場合があったり、免疫力が大人に比べ低いので、**気をつけた方がいい**からです。

次は**お見舞いに行く際に持っていく品**に対して話しました。さまざまな物がありますが、今回は「お花」、「食べ物」、「小物」、「現金」について取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花**は花粉が飛んでしまい、アレルギーを誘発す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特に気を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百合など匂いがきついお花や、亡くなった人にあげる菊、椿、シクラメンなど縁起が悪いお花も避け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花瓶は割れやすく、細菌が繁殖するため、花瓶が必要なお花もよくないです。植木鉢は病院に長く入院す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ため、よくないです。最近プリザーブドフラワーが人気ですが、持つ込みの際は事前に病院に確認した方がいいです。

お菓子や果物、飲み物などを用意して行く場合も多いようですが、病症によって食べてはいけない場合もあ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確認して持って行くのが良いでしょう。特に制限がない場合でも消化の悪い物や、食べるのに手間がかかるもの、傷みやすい物を避けた方がいいです。

小物でしたら、本や雑誌などがいいと言われ、パジャマやスリッパなどは縁起が悪いのでよくないです。パジャマは椿と同じく「(寝)根が付く」ので、入院が長引く事を連想させる為です。現金を渡す場合も多いのですが、必ず、のしをついた専用封筒に入れて渡します。紅白の蝶結びののし袋はほどけやすいし、何度でもまた結べるので、何度も病気になるということを連想させる為、結び切りののし袋を選びましょう。また、目上の方に現金を渡すのはマナー違反だそうです。

韓国でもお見舞いに行く際は入院してから2、3日後がよく、無理しない程度で日本と同じく30分ぐらいが良いと言われています。**会話**は相手の話をよく聞いて相槌を打つのが良いと思います。なるべく肯定的な話をし、否定的な話を避けるのが基本的なマナーだと思います。

又、**服装**も大事です。立派すぎるのも失礼ですし、全身を黒にしたらお葬式を連想させるのでよくないです。

韓国もお見舞いする時によく**お花**を持っていきますが、赤い花や菊などとアレルギーを誘発する花粉が飛ぶ花も避けた方がいいです。そして出来る限り、植木鉢も避けた方が良いでしょう。

最近、患者も食べやすい物やお見舞いに来る方に配る事も出来る**果物**や**飲み物**を用意する人が増えたようですが、これらも持って行く前に確認した方がいいです。

日本と韓国のお見舞い方法は同じところが多いです。複雑で難しそうに見えますが、それほど難しくはありません。日本も韓国も全て患者である相手を自分の家族を対するよう、温かい心でおもてなしするなら自然に礼儀正しいお見舞いができると思います。

『 병문안 』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병문안에 대해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병문안을 가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가는 것이 예의이며, 가게 된다면 면회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30분 정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여러 명이 가거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바이러스를 자신도 모르게 옮겨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병문안을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가는 꽃, 음식, 현금 등으로 분류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꽃은 꽃가루가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백합 등 향기가 진한 꽃이나 보통 죽은 사람에게 헌화하는 국화, 동백꽃, 시클라멘, 등 불길한 의미를 지닌 꽃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꽃병은 깨지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화분은 깊게 뿌리내리는 까닭에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피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인기가 많지만 이 역시 들고 갈 때에는 사전에 환자나 그 가족에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과자나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지만, 병의 증세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소화하기 나쁜 것이나 먹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상하기 쉬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간단한 물건 중에는 책이나 잡지 등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잠옷이나 슬리퍼 등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물건이기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옷은 동백꽃과 같이 잠들다, 얹아 눕다라는 의미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야 합니다. 흥백의 나비 매듭은 풀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 번 병에 얹는다는 것을 연상시키기에 쉽게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윗사람한테 돈을 드리는 것은 실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원한 지 2,3일 후가 병문안을 가기에 적절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무리하지 않게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병문안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피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맞춰 입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병문안 갈 때에도 꽃을 드리고는 하지만 빨간 꽃이나 국화 등 불길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화분도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요즘에는 환자들도 먹기 쉬운 음식이나 또, 병문안을 온 사람에게도 나눠 드릴 수 있는 과일이나 음료수를 준비해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 역시 들고 갈 때 확인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병문안의 문화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모두 다 환자인 상대방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병문안의 기본적인 예절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 パクジヘ / ソンヒョンジャ / ジャンユンヘ / ジョンミンジ /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 くぼたもえこ / ごとうはるか / さとうさやか /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お見舞い・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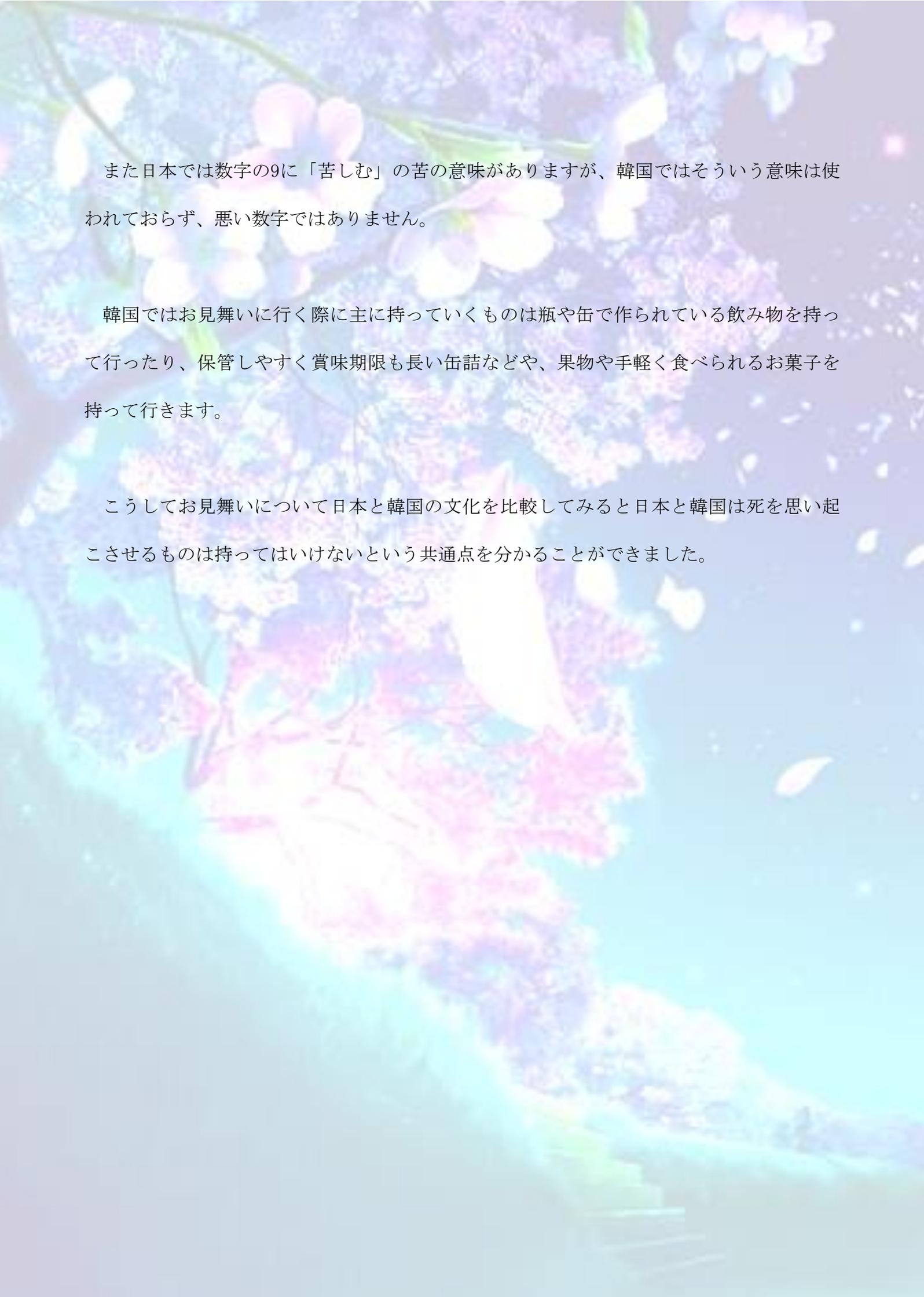
日本と韓国のお見舞いについての話です。どちらの国も、菊の花は亡くなった人にお供えするための花なので、お見舞いには持って行ってはいけません。

また日本では鉢植えは'根付く(寝付く)' という意味があり縁起が悪いので、お見舞いには持って行ってはいけません。

そして百合の花は香りが強く患者さんが疲れを感じやすく、白の百合の花の場合お葬式の際、飾り物として使われる場合が多いのでなるべく避けたほうがいいです。

また、真っ赤な花は「血」を思い起こさせるのでお見舞いの時には望ましくありません。

病室やアパートやマンションの話では、日本でも韓国でも数字の4は「死ぬ」の死の意味があるので、それを避けて、104号室、204号室、304号室など数字の4のつく部屋を作らない場合もあります。



また日本では数字の9に「苦しむ」の苦の意味がありますが、韓国ではそういう意味は使われておらず、悪い数字ではありません。

韓国ではお見舞いに行く際に主に持っていくものは瓶や缶で作られている飲み物を持って行ったり、保管しやすく賞味期限も長い缶詰などや、果物や手軽く食べられるお菓子を持って行きます。

こうしてお見舞いについて日本と韓国の文化を比較してみると日本と韓国は死を思い起こさせるものは持つてはいけないという共通点を分かることができました。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혜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즈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2015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병문안 · 문화

일본과 한국의 병문안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쪽의 나라도 국화는 죽은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한 꽃이기 때문에, 병문안에는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화분은 ‘얕아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불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병문안에는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백합꽃은 향이 강해서 환자가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흰 백합의 경우 장례식 때에 장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새 빨간색의 꽃은 ‘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병문안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실이나 아파트야 맨션에 대한 주제 에서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숫자 4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104호, 204호, 304호 등 숫자 4가 붙는 방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숫자 9는 ‘괴로워 하다’의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불길한 숫자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병문안을 갈 때에 주로 가지고 가는 병문안 선물은 병이나 캔으로 된 음료수를 가지고 가거나, 보관하기도 쉽고 유통기한도 긴 통조림 등, 과일이나 손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병문안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문화비교를 해 보니 일본과 한국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3조>

イジヨンジエ イスンヒョン イオッキョン イ4ヒエジン オウケイ
이정재, 이승현, 이옥경, 임혜진, 오우케이
タカハシ ミホ ヒジカタ サヤカ サトウ ミキ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사토우 미키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3 組 >

イジョンジェ、イスンヨン、イグキョン、イムヘジン、オウケイ
李政宰、李乘然、李玉京、林惠眞、王經
タカハシメヒコ、ヒジカタサヤカ、サトウミキ
高橋美穂、土方沙耶香、佐藤実希

<시작하며>

저희 3그룹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병문안과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3국의 병문안과 장례식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병 문안

1) 병 문안에 가져가는 꽃

한국 : 뿌리가 있는 식물은 오랫동안 있다는 를 의미 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

일본 : 가져가선 안되는 꽃 (국화 등) 이외의 꽃과 작은 사이즈의 꽃병을 준비한다.

중국 : 카네이션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카네이션의 발음이 건강을 연상시킴)

*한국은 최근 꽃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2) 병 문안에 가져가는 물건

한국 : 음료수 (오렌지 주스가 보통), 족 , 과일

일본 : 과일 바구니

중국 : 우유 , 주스 , 과일

*3국은 공통적으로 병문안에 과일을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지인이 입원을 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병문안을 가는가

한국 :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연락을 하여 일정을 맞추어 간다.

일본 : 지인의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병문안을 간다.

중국 :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연락을 하여 일정을 맞추어 간다.

<初めに>

私たち3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中国のお見舞い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3国の文化の違いについて話し合い、まとめました。

1. お見舞い

1) お見舞いに持っていく花

日本 : 持っていったらいけない花(菊など)以外の花と小さめの花瓶を用意する。

韓国 : 根がある植物は長く止まることを指すため、持って行かない。

中国 : カーネーションを持っていくのが望ましい。(カーネーションの発音が健康を連想させる)

* 韓国の場合、最近の花をあんまり持って行かなく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2) お見舞いに持っていく食べ物

日本 : 果物の詰め合わせ

韓国 : 飲み物(主にジュース)、お粥、果物

中国 : 牛乳、ジュース、果物

* 3国は共通して果物を持っていくことが分かりました。

3) 知り合いが入院したとき、どの時点でお見舞いに行くのか

日本 : 状況が落ち着いてから行く。

韓国 : 連絡をもらったときすぐに相手に連絡をし、時間を合わせていく。

中国 : 連絡をもらったときすぐに相手に連絡をし、時間を合わせていく。